

2026 네덜란드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9
3. 주요 이슈 Pick	11
가. 강화되는 ESG 및 공급망 실사 규제	11
나. 국방비 증액과 방위 산업 협력 확대	12
다. 네덜란드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확보 난항	13
라. 디지털 전환(DX) 가속화와 규제 강화	14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가. 시장 특징	18
나. 무역	21
다. 산업	28
라. 투자	29
2. 유망 산업	34
가. (소비재) 농식품 산업	34
나. (소비재) 화장품 산업	37
다. (에너지) 해상풍력	39
3. 협력 기회	42
가. 통상·G2G	42
나. 프로젝트	42
다. 공급망	45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7
2. 진출전략	4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60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62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3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8 |
| 3. 주요 이슈 Pick | 11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25년 네덜란드 경제는 임금 상승과 가계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공공투자 확대 등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둔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 폭은 제한될 전망이며, '26년에는 무역 감소와 불확실성 지속, 실질임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완화되며 성장을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소폭 하락) '25년 임금 상승과 가계 실질소득 증가에 힘입어 1.6% 성장한 후, '26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나 무역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1.4% 성장에 그칠 전망(CPB(네덜란드 경제기획국), Macro Economische Verkenning 2026, '25년 9월)

- ('25년) 네덜란드, 임금 상승과 가계 실질소득 증가에 힘입어 '25년 GDP 1.6% 성장 전망
 - (무역) 미국 관세의 총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나, 기계·차량 산업은 불균형적 타격
 - (실업률) 구인 수요가 줄어들며 실업률은 3.9%로 소폭 상승, 다만 임금은 여전히 5%대 강세
 - (물가 상승률) 서비스·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은 2.9% 수준 지속
- ('26년) 인플레이션 완화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나, 정부 소비의 증가세 둔화와 무역 위축,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며 GDP 성장률은 1.4% 수준에 그칠 전망(CPB, Macro Economische Verkenning 2026, '25년 9월)
 - (무역) 미국 관세와 불확실성 여파로 교역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수출 증가율은 1.9%, 수입 증가율은 2.2%에 그칠 전망
 - (고용) 고용 증가세 둔화하여 실업률은 '24년 3.7% → '25년 3.9% → '26년 4.0%로 점진 상승, 명목임금 상승률도 '24년 6.4% → '25년 5.1% → '26년 3.7%로 둔화
 - (물가) 임금 및 임대료 상승세가 완화되며 물가도 안정세를 보여,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25년 2.9%에서 '26년 2.1%로 하락
 - (재정) 정부 지출 이연과 세수 감소 요인으로 '25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9%, '26년에는 -2.7% 수준 유지
 - (재정) 정부 부채는 43.7%('24년) → 44.8%('25년) → 47.9%('26년)로 점진적 확대 전망(CPB, Macro Economische Verkenning 2026, '25년 9월)

□ (호재 요인) 가계 소득 증가와 정부 투자 확대

- '24년 명목임금은 6.4% 상승했고, '25년에도 5.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점진적으로 '26년 3.7%로 완화될 전망(Spring 2025 Economic Forecast for the Netherlands, '25년 5월 19일)
 - '25년에는 임금과 소득이 늘면서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이 3% 이상 증가하고, 이는 민간 소비 확대와 내수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 (부진 요인)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고용시장 둔화

- 네덜란드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제한적이나 철강·기계·차량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줄 전망(Spring 2025 Economic Forecast for the Netherlands, '25년 5월 19일)
 - 이에 따라 교역 둔화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17.3	17.4	17.5	17.6	17.8	17.9	18.0	18.2
명목 GDP	십억 달러	929.01	931.81	1,060.0	1,050.0	1,150.0	1,218.4	1,273.0	1,325.69
1인당 명목 GDP	달러	53,760	53,530	60,380	59,540	64,830	67,984	70,606	73,105
실질 성장률	%	2.0	-3.9	6.3	5.0	-0.6	1.1	1.6	1.4
실업률	%	4.4	4.9	4.2	3.5	3.6	3.7	3.9	4.0
소비자물가 상승률	%	2.7	1.1	2.8	11.6	4.1	3.2	2.9	2.1
재정수지(GDP 대비)	%	1.8	-3.7	-2.2	0.0	-0.4	-0.9	-1.9	-2.7
총 수출	백만 달러	633,058	590,576	707,962	919,752	865,981	920,645	419,643 (25년 6월)	N/A
(對韓 수출)	백만 달러	4,196	6,230	9,163	8,130	8,062	8,174	5,545 (25년 7월)	N/A
총 수입	백만 달러	567,891	521,641	641,715	855,127	780,238	813,977	386,879 (25년 6월)	N/A
(對韓 수입)	백만 달러	4,243	3,987	5,811	7,869	6,856	6,799	5,097 (25년 7월)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65167	68,935	66,247	64,625	85,743	106,669	32,764 (25년 6월)	N/A
경상수지	백만 달러	62,986	46,743	124,817	93,655	113,572	121,981	131,708	138,713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	1.2	1.1	1.1	1.1	1.1	1.1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66,073	62,355	64,743	66,358	63,087	63,351	62,736 (2분기)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6,040	52,402	54,670	57,516	53,685	54,408	53,799 (2분기)	N/A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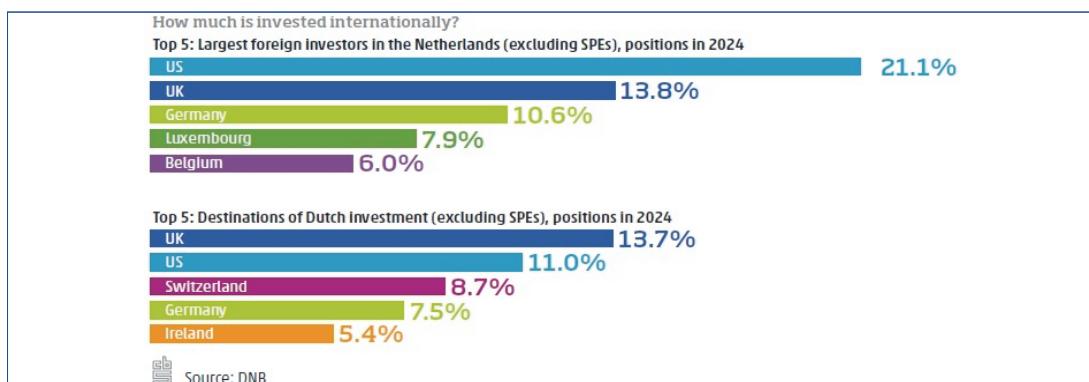
자료: 네덜란드 경제기획국(CPB), 네덜란드중앙은행(DNB),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무역협회

□ 현지 경제 상황

- '25년 네덜란드 경제는 임금 상승과 공공지출 확대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는 실질소득 개선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면임
 - 반면 투자와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경기둔화 및 통상 불확실성으로 제약을 받고 있음. 대외교역은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금리 수준과 정책 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임
-
- (경제 성장률) 네덜란드의 '25년 경제 성장률은 중앙은행(DNB)이 1.1%, EU 집행위원회가 1.3%, 정책기획청(CPB)이 임금 상승과 가계 실질소득 증가에 힘입어 1.6% 성장으로 전망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임금이 '24년 한 해 동안 6% 이상 상승했고, '25년에도 약 5% 내외 증가가 예상되어 가계소득 확대와 민간 소비 증가를 뒷받침하는 추세(CPB, '25년 2월)
 - 수출은 세계 경기둔화와 미국·EU 간 통상 긴장(관세 부과)의 여파로 제한적일 전망임(European Commission, '25년 5월)
 - 정부는 국방, 에너지 전환, 주택 분야 중심의 공공투자를 확대해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음(De Nederlandsche Bank, '25년 6월)
 - (소비) '25년 들어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5년 7월 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며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세금 인하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개선되면서 소비 여력이 강화되고 있음(CBS(네덜란드 통계청), '25년 9월 9일)
 - 주택시장 회복세와 정부 보조금 정책도 소비 확대를 지원하는 국면이나, 소비자 신뢰지수는 여전히 낮고 가계가 저축률을 평균 5%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소비 증가 속도는 제한적임(De Nederlandsche Bank, '25년 6월)
 - (민간 투자) '25년 들어 월별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
 - '25년 6월에는 유형고정자산 투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으나, 5월에는 4.0% 감소 하는 등 등락이 두드러짐. 항공기·선박·인프라 부문 투자는 증가했으나, 건설·차량 투자는 둔화한 모습임(CBS, '25년 8월 20일)
 -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국·EU 통상마찰, 국내 에너지비용 상승 등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로 보수적인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5년 5월)
 - 정부는 국방·그린 전환 프로젝트 등 전략 분야에 공공투자를 확대하며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일부 보완하는 흐름

- (산업생산) 제조업 중심으로 약세가 지속되는 추세
 - '25년 7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1%로 감소했으며, 절반 가까운 산업 부문에서 생산이 줄어든 상황이며, 특히 화학 산업과 일부 반도체 장비 업종은 수출 둔화와 맞물려 수익성이 압박을 받고 있음(CBS, '25년 9월 10일)
 - '25년 2분기 네덜란드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0.7% 감소했으며, 국내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화학·정유 산업은 12.1% 하락, 전자·기계 산업은 3.9% 증가, 식품·주류 산업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DutchNews, '25년 8월 19일)
- (대외 교역)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교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개방경제 중 하나로, 상품·서비스 수출입 규모가 GDP의 약 156%에 달함(WB(세계은행), Trade, '24년)
 - '24년 3분기 상품수지는 약 223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고(DNB(네덜란드 중앙은행, '24년 12월 24일), '25년 상반기對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CBS, '25년 9월 16일)했으며, '25년 1월 전체 수출도 5.1% 증가세를 보였음
- (투자 유입) 네덜란드는 여전히 세계 3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국 중 하나임
 - '24년 말 기준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잔액은 3조 5,270억 유로(전년 대비 +1.7%)로, 5년 최저치였던 '23년(3조 4,040억 유로) 이후 소폭 증가함
 - 특수목적법인(SPE)을 제외할 경우, 주요 투자국은 미국(5,340억 유로), 영국(3,490억 유로), 독일(2,670억 유로), 룩셈부르크(1,990억 유로), 벨기에(1,510억 유로) 순으로, 이 5개국이 전체 FDI 유입의 약 60%를 차지함
- (투자 진출) 네덜란드는 세계 주요 대외 투자국으로서의 위치 유지
 - '24년 말 기준 해외 직접투자 잔액은 4조 3,400억 유로(전년 대비 +1.0%)로 소폭 상승함
 - 주요 투자 대상국은 SPE 제외 기준으로 영국(4,330억 유로), 미국(3,060억 유로), 스위스(2,290억 유로), 독일(2,250억 유로), 아일랜드(1,380억 유로)이며, 상위 5개국이 전체 FDI 유출의 약 45%를 차지함

〈'24년 네덜란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유출 상위 5개국〉



자료: DNB

2. 정치(정책) 환경

- 네덜란드는 연정 붕괴로 총리 사임 후 내각의 국정 대행 체제가 이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및 유연근로 개혁, 임금투명성 지침 등 노동규제가 순차 도입되는 가운데, 질소·탄소 규제와 ESG 보고·실사 의무가 강화되며 기업 환경 부담이 커지는 추세임. 우리 기업은 공급망 ESG 준수, 환경 규제 대응, 현지 인건비 상승을 주요 진출리스크로 인식하고 대비가 필요함

가. 정부 현황

□ (정치) 연정 유지 불가로 총리 사임, 현재 사무관리 내각(Demissionair Kabinet) 전환

- '25년 7월 출범한 4당 연정이 '25년 6월 3일 이민정책 강경화 이견으로 연정 결렬
 -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 사임 이후 새 총선 준비까지 사무관리 체제가 지속되며 정부 기능은 유지되지만, 중대한 법안 및 예산의 추진 동력 약화
 - * 네덜란드는 전국 단일 비례대표제로 약 0.67% 득표만으로도 하원 1석을 얻을 수 있어 과반이 드물고, 그 결과 연립 정부가 통상적임
- (총선) 네덜란드 조기 총선 '25년 10월 29일 확정되었으나 규제 불확실성 확대
 - (난민·이민) 연정 이탈의 직접 원인은 이민 강경 패키지 미이행으로 자유당(PVV)은 육상 국경 군 배치, 모든 망명 신청자 거부 등 강경 10항을 공개 제시
 - (조기 총선) 조기 총선 일정은 '25년 10월 29일 확정되었으나, 선거 국면 진입으로 정책 추진 속도 저하와 기업 투자·채용 의사결정 보수화 가능성 확대
 - (규제 개편) 사무관리 내각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논쟁 의제를 다루지 않아 이민·안보·경제 등 중대 제도 개편 지연으로 불확실성 확대
- (정치 동향) 네덜란드 총선 결과, 중도·자유주의 세력 약진으로 정치 지형 재편
 - (선거 결과) 암스테르담 개표 완료 후 중도·친EU 성향의 민주66당(D66, Democrats 66)이 극우 성향의 자유당(PVV, Party for Freedom)을 약 1만 5,000여 표차로 앞서며 제1당으로 확정, PVV는 26석 확보에 그침
 - (정당 반응) 자유민주국민당(VVD)과 D66은 조기 연정 협의 착수 견해를 밝혔으며, PVV는 '모든 표가 집계될 때까지 연정 논의 연기'를 공식 요청
 - (EU 관계) 브뤼셀에 있는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는 'D66 주도의 친EU 정부가 구성될 경우, 네덜란드의 對EU 협력 태도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평가
 - (정치 구도) CEPS 및 유럽정책센터(EPC, European Policy Centre)는 'PVV는 야당으로 전환하고

정치 지형은 여전히 양극화 상태이며, 향후 연정 구성 시 기후·예산 이슈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반도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25년 4월 1일 시행)

-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일부 측정·검사 장비에 국가 수출 허가 의무 부과
 - 통제되지 않은 수출로 인한 안보 위험과 해당 장비가 타국 기술과 결합하여 군사용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규정을 개정
 - * '23년 9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 개정
 - EU 역외 수출국에 해당하며 사안별(Case-by-case) 심사로 전면 금지는 아니며, 집행기관·업계의 이해를 돋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부속서 전면 교체

□ (반도체) 전략기술 통제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 대응 조치 시행('25년 10월)

- (사건 개요) 네덜란드 정부, 중국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안보 기반 경영 개입 조치 단행
 -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자본이 소유한 반도체 기업 Nexpelia에 대해 '물자 가용성법(Goods Availability Act)'을 근거로 경영에 일시적으로 개입하고 관리권을 행사하는 조치를 단행함
 - 해당 조치 이후 중국은 Nexpelia 제품의 대외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 내 주요 완성차 및 부품 업체가 공급 차질 우려를 제기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됨

□ (노동) 근로 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추진

- (최저임금) '25년 7월 1일부 21세 이상 최저임금 시간당 14.40유로로 인상
 - * 네덜란드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조정되며, '25년 1월 1일 14.06유로로 인상
 - (청소년 최저임금) 21세 미만(15~20세)은 연령별 청소년 시급이 적용되며, 성인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조정
- (유연근로) 유연근로자 보장강화 법안(Meer Zekerheid Voor Flexwerkers) 제출
 - (목표) 파견·기간제 등 유연계약과 무기계약 간 격차 축소
 - (대상) 파견계약, 기간제(임시)계약 등 유연계약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일정) '26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일정 지연으로 '26년 7월 1일 시행 목표
 - (내용) 기간제(임시) 재고용 공백 기간을 6개월에서 최소 60개월(5년)로 강화하여 같은 근로자를 단기간 해고했다가 다시 임시로 고용하는 관행을 막고 무기계약 전환 유도
 - * 네덜란드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3회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기간제 3회에 도달하기 전 6개월을 비운 뒤 같은 근로자를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는 관행 존재

- (평등 임금) 네덜란드, EU 임금투명성 지침 이행

* 남녀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제 적용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회원국은 '26년 6월 7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 의무(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25년 5월 20일)

- (핵심 의무) ①채용공고에 임금 범위 표시, ②지원자의 과거 임금 질문 금지, ③직원·지원자 요청 시 2개월 내 임금 정보 서면 제공 의무 ④상시 100명 이상 기업에는 성별 임금 격차 산정 및 공시 보고가 단계적으로 적용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 (보고 주기)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31년부터 3년마다, 150~250명 미만 '27년부터 3년마다, 250명 이상 '27년부터 매년

- (시정 및 집행) 성별 임금 격차가 5% 이상이고 객관적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시정 조치 및 합동 임금 평가 요구(일반적으로 6개월 내 개선 조치)하며, 감독기관 점검·제재 가능

□ (ESG) 환경 규제 강화, 진출 기업 보고·인증 의무 확대 전망

- (질소 보호 기준) '25년 1월 22일 헤이그 지방법원, '30년까지 보호구역 안에 있는 질소에 취약한 서식지의 면적 중 최소 절반(50%)을 질소 오염 임계치 이하로 낮출 것을 정부에 법적 의무 부과,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유로의 제재 가능

- (기업 영향) 건설 공사, 물류부지 조성, 축산시설 증설 등 허가가 필요한 활동은 질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심사가 엄격해질 뿐만 아니라 장기화 가능성 있음

- (지속가능성 규정) '25년 6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CSRD)와 공급망 실사 (CSDDD)의 보고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과 범위 일부를 단순화하자는 협상 입장을 채택

- 최종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데이터 관리, 내부 통제와 공급망 실사 체계를 현재로 유지하며,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적용 시점과 대상 범위만 업데이트 가능(탄소국경조정제도)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3년 10월 전환기(Transitional Phase)에 진입하였으며, '25년부터는 신고 의무 및 CBAM 등록자(Authorised Declarants) 지위 신청이 필수 예상됨.

- '24년 7월부터는 가능한 경우 실제 배출량(Actual Emissions) 보고가 요구되며, '25년 3월 31일부터는 각 회원국 당국을 통해 CBAM 등록자 지위 신청 절차가 본격 시행됨

- '26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자만이 CBAM 품목 수입 가능하며, 연간 보고와 함께 CBAM 인증서 구매·제출(Surrender) 의무가 발생하는 국면

- (기업 영향) 수입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인증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 등 재정적 부담(Financial Adjustments)이 본격화 되는 국면

3. 주요 이슈 Pick

가. 강화되는 ESG 및 공급망 실사 규제

□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법적 요구 확대

-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EU는 '24년 최종 합의 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Directive 2024/1760)을 발효, 기업이 전(全) 공급망에서 인권·환경 침해를 식별·예방·관리하도록 의무화
 - (적용 시기) 회원국 이행 법제화 시한은 '27년 7월까지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28년 이후 단계적 적용 예정
 - (적용 대상) EU 내 직원 5,000명 이상 또는 매출 15억 유로 이상 기업, 비EU 기업도 동일 기준 매출 초과 시 포함
 - (주요 내용) 기업은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에 따라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며, 기후 전환 계획은 '최선의 노력' 대신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s)'으로 완화됨
 - (미준수 시 제재) 해당 지침 미준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
-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RD)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으로, '24년 사업연도('25년 보고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중
 - (적용 대상) '25년 개정안에 따라 적용 대상은 직원 1,000명 이상 또는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으로 조정
 - (보고 범위)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을 포함하며, 미이행 시 회원국별 행정 벌금 및 평판 위험이 수반됨
 - (향후 계획) EU 집행위원회는 '26년 7월까지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완비할 예정
- (제조·소비자 기업 영향)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ESG 실사 요구가 확산되어 납품망 전반에 부담 확대
 - (철강·화학) 고탄소 업종은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 대응 전략이 필수
 - (소비자) 패션·생활용품 등 글로벌 공급망 보유 업종은 하청업체 노동권·인권까지 관리 요구
- (우리 기업에의 영향) ESG를 비용이 아닌 시장 진입 조건이자 경쟁력 요소로 인식하고, 내부 경영 체계 정비와 인증 취득을 통해 네덜란드 바이어 신뢰 확보 필요
 - (규제 대응 필요성) EU 시장 진출·수출 기업은 협력사 ESG 리스크를 선제 점검하고 개선 체계 구축 필요, 미흡 시 거래 중단 가능

- (기회요인) 재생에너지 활용, 공정무역 인증 등 ESG 우수 사례는 EU 바이어와 투자자에게 매력적 요인으로 작용
- (리스크) 준비 부족 시 보고·실사 비용 증가, 거래선 축소, 평판 악화 등 위험 노출

나. 국방비 증액과 방위 산업 협력 확대

□ 변화된 안보 환경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

- (국방비 대폭 증액) '25년 예산안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국방비를 약 240억 유로로 책정하고, 여기에 추가로 약 11억 유로 증액하여 총 지출 규모를 확대(Reuter, '25년 4월 16일)
 -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기존 2% 수준에서 점차 상향 조정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3.5%에서 최대 5%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
 - 증액된 예산은 노후 군사자산 교체, 병력 확충, 국방 인프라 강화에 투입되는 추세
- (투자 방향) 국방예산 확대는 전통적 무기체계(육·해·공군 장비)뿐 아니라 신흥 분야에도 집중되는 양상
 - △ 사이버 방어 및 위성통신, △ 드론 및 무인체계, △ 군수 물류 자동화, △ 방산 ICT·AI 응용 기술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흐름
 - 이와 더불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공조 강화 차원에서 네덜란드는 다국적 무기 공동 개발·운용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내 다양한 협력 수요가 발생하는 국면
 - * '25년 10월 17일 네덜란드와 독일은 총 222대의 BOXER Schakal 보병전투차량(Boxer Schakal Infantry Vehicle)을 공동 구매하기로 하였음. 두 국가는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되 통신 장비만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네덜란드는 72대, 독일은 150대를 보유하게 됨(Netherlands Ministry of Defence, '25년 10월 17일)
- (기회요인 1) 정부·산업·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른 기술 협력 기회
 - 네덜란드가 드론·센서·위성 감지 기술(Military Drones, Sensors, Satellites) 등에 약 12억 유로 규모 투자 계획 발표함으로써 관련 부품·전자장치·제어 시스템 등에 대한 수요 증가하는 추세
 - 네덜란드 국방부 타인만(Gijs Tuinman) 차관은 “안보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네덜란드는 드론·무인체계·기술 중심으로 전략적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첨단 방산기술 분야의 민·관·군 협력 확대 방침을 강조함
 - * 전 세계 군사용 드론 시장 규모가 '23년 약 140억 유로에서 '30년 360억 유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네덜란드 정부는 드론·무인체계·센서·위성 감시 기술 등 첨단 방산기술을 핵심 육성 분야로 지정하고,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VDL 보른(Born) 공장을 드론 생산시설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조 기반 및 기업 지원을 추진 중임(NL Times, '25년 9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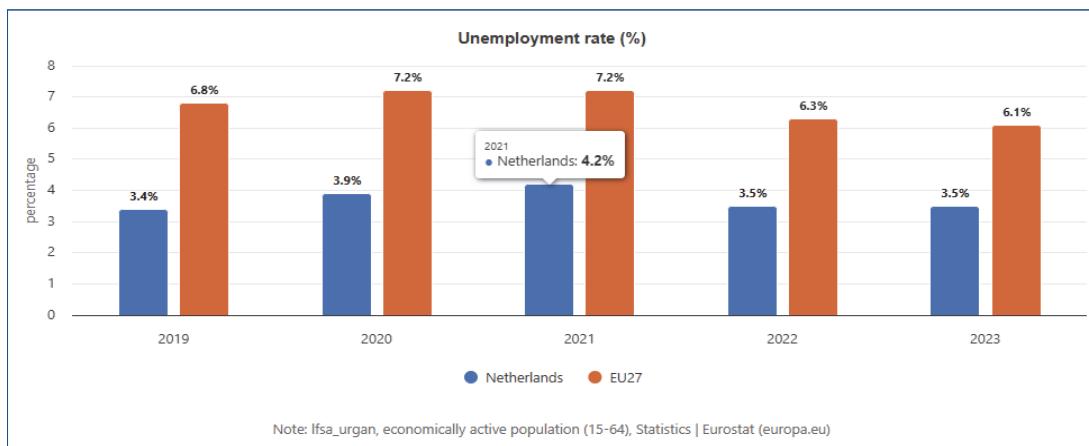
- (기회요인 2) 드론·ISR(감시·정찰) 조달 사업 확대로 인한 진입 기회
 - 'Defence Strategy for Industry and Innovation 2025~2029' 문서에서 정부·산업·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시됨. 해당 전략은 방위 산업 공급망 내 민간 기술 활용과 공동 연구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함
 - 네덜란드 국방부는 GUIDE(Group Unmanned Aircraft System ISR Drone) 사업과 관련해 514대 규모 소형 ISR 드론 공급 입찰을 공고('25년 3월 14일 최초 공고, EU TED 게재·후속 공지 '25년 10월 14일)함
 - * 해당 절차는 EU 방위조달 지침(Directive 2009/81/EC) 적용 대상이며, 절차 유형이 '비공개(Non-public)'로 명시되어 해외 업체의 참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됨(네덜란드 국방부, TenderNed 및 EU Tenders Electronic Daily(TED), '25년 3월 14일, '25년 10월 14일)
 - 이어 보른(Born) 지역의 구(舊) 네드카(Nedcar) 공장을 방위 산업 생산거점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해당 부지(약 45만m²)는 VDL 소유로, 드론 제조업체 델타콰드(DeltaQuad), 배터리 생산업체 툴립 테크(Tulip Tech), 로봇 기업 밀렘(Milrem) 등이 각각 10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에 착수함
 - * 툴립테크는 드론 비행시간을 최대 100% 연장 가능한 배터리를 생산하며 18개월 내 연간 150만 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고, 밀렘은 '26년 초부터 연간 약 150대의 무인 지상차량(UGV)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델타콰드는 정찰용 드론을 월 수십 대에서 수천 대 수준으로 증산할 계획으로, 라인메탈(Rheinmetall)과 데스티너스(Destinus)도 VDL 및 국방부와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 중임(Financieele Dagblad, '25년 10월 7일)

다. 네덜란드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확보 난항

□ 최근 수년간 유럽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며 극심한 인력 부족 현상

* '24년 기준, 실업률은 3.7% 내외로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낮으며, '24년 말 구인 공고 100건당 구직자 수는 92명에 불과(CBS, '25년 3월 27일)

〈네덜란드와 EU 실업률 추이〉



- (현황) 일자리 수가 일할 사람보다 많은 초과수요 상태로 의료분야와 기술·공학 분야 숙련공 부족으로 이들 업종 구인은 상시 미충원 상태
 - (완전고용 근접) 네덜란드 노동참여율이 이미 75%(15~74세 기준)로 매우 높아 추가로 일할 수 있는 잠재 인력이 적음
 - (인구 고령화) 은퇴자는 증가하지만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 지속
- (전망) 제조·건설·서비스업 전반에서 인력난 영향
 - (임금 상승) 노동력 부족으로 임금 상승 압박이 커져 지난 2년간 네덜란드 전체 임금 수준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가파르게 상승하여 근로자의 구매력 방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
 - (수급 전망) 구인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투자와 해외 인력 활용이 불가피할 전망
 - * 네덜란드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근무 요청 시 기업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재택근무 권리 법제화를 논의하고 '22년 하원에서 어디서나 일할 권리(Wet Werken Waar Je Wilt, Work from Home/Where You Want Bill)를 통과시켰으나, '23년 9월 상원에서 부결
- (우리 기업에의 영향) 네덜란드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전략에 반영
 - (리스크 대응) 제조·물류 시설을 네덜란드에 투자할 경우, 자동화 설비 도입을 최대화하고, 고숙련 인력은 주변국이나 한국에서 파견하여 충원하는 방안을 고려
 - (기회요인) 인력난 장기화로 직무 재교육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어 기업 맞춤형 훈련 및 민간 교육 파트너십 기회 확대
 - * 네덜란드 정부는 지역·산업 내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국가성장기금의 다년 투자 프로그램(LLO 카탈리스트) 3차 공모에서 선정된 39개 프로젝트에 총 3,660만 유로를 지원(Rijksoverheid, '25년 3월 28일)

라. 디지털 전환(DX) 가속화와 규제 강화

□ EU 디지털 규제 본격화로 설계단계 준법 내재화와 플랫폼 개방 기회 동시 대응 필요

- (배경) 유럽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이 급속 진행
 - * '23년 기준, 네덜란드 가구의 98.3%가 초고속망(VHCN, Very High-Capacity Network)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EU 평균(78.8%)을 크게 상회하고 인구의 82.7%가 기본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Netherlands 2024 Digital Decade Country Report, '24년 7월 2일)
- (정부 정책) 네덜란드 정부는 '신(新) 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을 발표하고, 반도체·AI·디지털 서비스 등 6대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산업 디지털화를 가속화
 - (산업정책 목표) 동 정책은 기존 Dutch Top Sectors 정책을 종료('26년 1월 1일)하고, 선택·집중형 산업 구조로 전환해 '30년까지 산업 GDP 비중 15%, R&D(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3% 달성을

목표로 함(Rijksoverheid, '25년 10월 17일)

- (AiNed) 인공지능(AI) 상용화 및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으로, '25년 'InnovatieLabs' 신규 공모 시행(AIC4NL, '25년 7월 4일)
- (NXTGEN Hightech) 스마트 제조·로보틱스·정밀장비 등 산업 DX 핵심 분야를 아우르는 대형 프로그램('23~'30년)으로 총 투자 규모는 10억 유로에 달함
- (기업 동향) 민간 부문에서도 AI·자동화 기술 도입이 확산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 중임
 - (ASML) '25년 9월 23일 프랑스의 생성형 AI 기업 Mistral AI 지분 11%를 취득하며, 반도체 설계·검증 공정의 AI 내재화를 강화(Reuters, '25년 9월 9일)
 - (Heineken) 싱가포르에 글로벌 생성형 AI 연구소(Global GenAI Lab)를 설립하고, AI Singapore와 협력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마케팅 자동화, 자식 관리 등 비즈니스 가치 창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확장형 GenAI 솔루션 개발을 추진(Heineken, '25년 3월 19일)
 - (Air France-KLM) Google Cloud·Accenture와 협력해 Generative AI Factory를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항공기 정비·운항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Accenture, '25년 7월 17일)
- (디지털 규제 패키지 시행)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발효
 - (DSA)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DSA '24년 2월 17일 전면 적용을 시작했고,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청(ACM)이 '25년 2월 4일부터 네덜란드 국내 집행을 공식 수행
 - (DMA) 시장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DMA는 '23~'24년에 걸쳐 게이트키퍼에 의무가 부과되어 앱 마켓 개방과 자사우대 금지 등이 시행 중
 - (데이터법) EU 데이터법(EU Data Act)은 사용자의 데이터 열람 및 이전 권리와 클라우드 갈아타기 용이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25년 9월 12일 적용에 따라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계약과 그 운영 기준이 변경될 예정
- (AI 규제) '24년 세계 최고 포괄적 AI 규제 법안인 AI Act 최종 채택
 - (AI Act) AI 기술의 위험도 분류와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 * 금지 시스템이 '25년 2월부, 범용 AI(GPAI)의 투명성·거버넌스 의무는 '25년 8월부터 단계 적용되며, '26~27년 고위험 AI 요건 순차 발효
- (사이버 보안) 사이버보안(NIS2) 지침의 네덜란드 이행법인 사이버보안법(CBW) 현재 입법 절차 지연 중
 - 네덜란드 정부는 해당 법률의 발효 시점을 '26년 2분기로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안 초안을 마련해 하원에 제출한 상태
- (관련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플랫폼 서비스업에 영향
 -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DSA에 따른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정기 리포트 제출 의무
 - 글로벌 거대 기술 기업에 적용되는 DMA로 앱 마켓 개방,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이 시행되면서,

모바일·소프트웨어 분야의 중견 기업들에 기회

- (우리 기업에의 영향) 한국 디지털 기업, 유럽의 규제 환경 모니터링 필요
 - (규제 대응 프레임) 네덜란드 사용자 대상 온라인 서비스는 DSA,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 요구사항을 서비스 설계단계에 내재화 필요
 - (AI Act 준비) 수출 또는 운영 중인 AI 기능을 위험도별로 분류해 금지 사항을 점검하고 고위험 모델은 △ 데이터, △ 거버넌스, △ 인증 로드맵을 '26년 전까지 수립 의무
 - * GPAI 제공 또는 활용 기업은 '25년 8월부터 투명성 문서와 콘텐츠 표시 의무 이행
 - (Data Act 실무 대응) '25년 9월 12일 전까지 데이터 내보내기(API, 표준 포맷, 보안)와 클라우드 전환 조항을 Data Act 기준에 맞춰 업데이트 필요
 - (시장 기회) DMA 시행으로 대체 유통·결제 경로가 열리면서 거대 플랫폼 의존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EU의 집행도 진행 중이므로 보안·프라이버시 강점이 있는 한국산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핀테크, 협업툴은 대체 또는 보완 옵션으로 제안하기가 유리
 - * 네덜란드는 디지털 수용도와 인프라가 높아 헬스 IT, 스마트 물류, 제조 DX 같은 원격형 솔루션의 파일럿·확산에 적합한 테스트베드
 - (리스크 관리) NIS2 국내법이 시행되면 에너지, 운송, 의료, 디지털 인프라 등 필수 사업자와 그 공급망은 보안 조치와 사고 보고 의무가 강화되어 이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안 거버넌스 체계와 표준 준수를 사전에 문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2. 유망 산업	34
3. 협력 기회	42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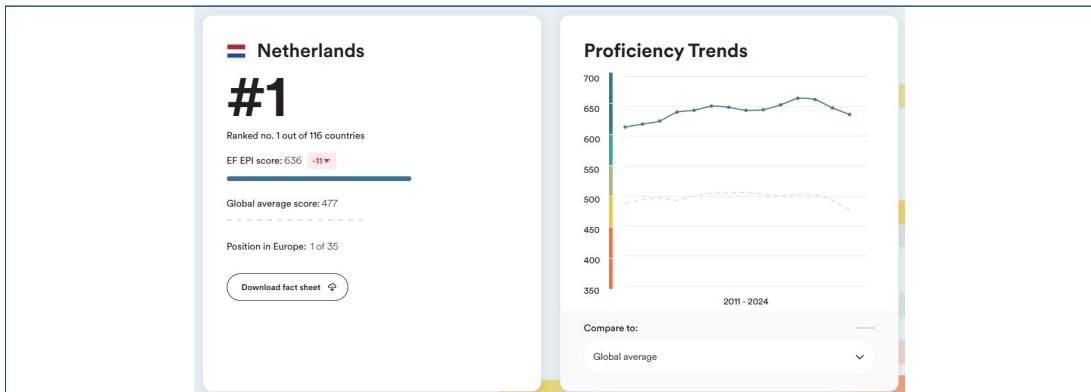
- 네덜란드는 인구 1,800만 명 규모의 고소득 단일시장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디지털·물류 인프라(로테르담 항·스키플 공항)를 기반으로 내수와 재수출이 결합된 ‘게이트웨이’ 역할
- ’25년 들어 수출·투자가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온라인 소비 비중(’24년 인터넷 이용자 94%가 전자상거래 경험)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수요가 커져 한국 기업의 기술·솔루션형 진출 여지 확대

가. 시장 특징

□ 시장 개요

- (EU 물류 허브) 로테르담 항은 유럽 최대 항만으로, ’24년 총 물동량 4억 3,580만 톤을 처리하며 전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컨테이너 물동량은 2.8% 증가해 1,380만EU에 달하는 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과정에서 유럽 물류·에너지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Port of Rotterdam Authority, ’25년 2월 21일)
 - (디지털 경쟁력) ’23년 기준, 네덜란드 가구의 98.3%가 초고속망(VHCN)에 연결, 성인 중 82.7%가 ‘기본 디지털 역량’을 보유해 디지털 서비스 수용성이 매우 높음
 - (영어 숙련도) ’24년 기준, 성인 영어구사력 국제지수(EF EPI) 상위권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채용·영업에 유리한 환경

* 성인 영어 숙련도는 EF EPI 2024에서 네덜란드가 세계 1위(636점)로 평가됨



자료: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2024

□ 소비 동향

- (온라인 소비 고도화) '24년 기준, 네덜란드 인구의 81%(12세 이상)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으며, 특히 25~44세 연령층의 94%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함. 온라인 지출 규모는 약 360억 유로에 달하며, '25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구조적 확산세가 지속되는 추세임(Statistics Netherlands(CBS), '24년 11월 29일, Ecommerce News, '25년 8월 1일)
- (카테고리 트렌드) 네덜란드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군은 여행·티켓(49억 유로)이며, 다음은 식품 및 생활용품(43억 유로), 보험서비스(32억 유로) 순으로, 이 세 부문이 전체 온라인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Ecommerce News, '25년 8월 1일)
- (소득 회복과 소비 양극화) '25년 들어 임금 상승이 물가를 앞서며 실질소득이 회복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소비는 한편으로 저가형을 찾는 '가성비' 선호가 강해지고, 식품 분야에서 친환경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지출이 함께 늘어나는 소비 양극화 추세

〈'24년 네덜란드 온라인 소비자 지출 현황〉



자료: ecommercenews.eu

□ 인증 및 시장 진입 요건

- (공통 인증 요건) 네덜란드로 수입 또는 유통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EU 단일시장 규제체계에 따라야 하며, 품목별로 위생·안전·표시 등 적합성 절차(일부 품목은 책임자 지정 포함)를 이행해야 함(The Netherlands Chamber of Commerce(KVK), '25년 8월 29일)
 - (식품·건강)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 감독 아래에 EU 식품 위생·표시·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품목은 수입 전 사전 승인 절차 준수
 - (화장품) EU 화장품 규정(EC)에 따라 책임 주체(Responsible Person) 지정, CPNP(EU의 화장품 제품 등록 포털) 온라인 통지, 제품정보파일(PIF) 보관, 안전성 평가가 필수

- (의료기기) EU 의료기기규정(MDR, Regulation (EU) 2017/745)이 적용되며, 기기 위험등급에 따라 CE 인증이 필요함. 고위험군(Class IIb~III)은 공인기관(Notified Body)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제조자·수입자는 MDR에 따라 사후감시(PMS, Post-Market Surveillance) 체계를 유지해야 함
 - * EU 의료기기(MDR) 및 체외진단기기(IVDR, Regulation(EU) 2017/746) 규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중앙 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EUDAMED(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s)에 등록하여 SRN(Single Registration Number)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자발적 사용 단계로,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된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이를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의무화될 예정임 (European Commission-EUDAMED Overview, '25년)

□ 네덜란드의 전략적 가치

- (유럽 북서부 시장으로의 최단 경로) 항만·내륙수운·도로망이 연결된 네덜란드는 독일·벨기에·프랑스 등 인접 대시장에 24~48시간 내 분산이 가능해 유럽 재수출 허브로 최적지
 - (디지털·영어 기반의 신속한 사업 전개) 초고속 통신망·높은 디지털 역량·영어 친화 환경으로 B2B SaaS·핀테크·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등 ‘무형·솔루션형’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장 가능

나. 무역

□ 네덜란드 수출입 동향

- (수출 동향) '25년 6월까지 네덜란드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며, 수입 또한 둔화 국면을 나타냄
 - *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5년 2분기 상품수지는 약 107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대외 흑자 구조를 유지하는 추세
- (수출 규모) '25년 6월 누계 기준, 역외 수출은 4,20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 CBS 발표에 따르면, 주요 수출 품목은 화학제품, 기계류, 반도체 장비 등으로, 특히 對미 수출 증가세가 일부 베티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 (수입 규모) '25년 6월 누계 기준, 역외 수입은 3,87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 CBS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무역수지 및 전체 교역) 일부 교역 파트너 국가(미국 등)와의 무역은 수출 증가가 있음에도, 상품 수입 규모가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거나 특정 품목에서 가격 하락 등이 수출 전체 수익성에 부담을 줌
 - 전체 네덜란드 상품 수출 및 수입액 사이의 월간 차액(Trade Balance)은 상품 종류 및 국가별 변화에 따라 편차 존재함

네덜란드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 수출	936	-2.8	921	-1.6	420	-7.1
역외 수입	843	-6.0	814	-3.4	387	-2.9
무역수지	94	40.2	107	13.8	33	-38.6
총 교역	1,779	-4.4	1,735	-2.5	807	-5.1

자료: Global Trade Atlas

□ 네덜란드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주요 수출국) '25년 5월 기준, 네덜란드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미국 순
 - (미국 수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 기계, 선박,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며 두 자릿수 성장세
 - * '25년 상반기 네덜란드의 對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으며, 이는 재수출이 24.6% 급증한 데 힘입었지만, 네덜란드산 상품 수출은 4.5% 증가에 머물렀고, 같은 기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0% 증가 수준(NL TIMES, '25년 7월 11일)
- (수출 품목) 석유제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감소세를 기록
 - (ICT·바이오) 컴퓨터와 통신기기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혈액제제와 의약품 역시 수출 증가를 견인
 - (반도체 장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이미 네덜란드의 대표적 수출 품목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 '25년 5월 네덜란드 상품 수출은 전년 대비 0.5% 증가, 화학제품·기계류가 호조,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5년 7월 독일 및 유로존 기업 신뢰 악화로 수출 여건이 여전히 불리하다고 평가

네덜란드 10대 수출국 및 수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24년	'25년 5월					'24년	'25년 5월		
	총 수출	852,609	363,261	4.3			총 수출	852,609	363,261	4.3	
1	독일	190,596	83,206	6.3		1	석유제품	51,684	19,817	-12.6	
2	벨기에	96,043	39,875	-2.6		2	컴퓨터	37,209	15,860	9.3	
3	프랑스	69,621	27,799	-1.5		3	통신기기	36,934	15,024	11.8	
4	영국	48,262	21,057	6.0		4	혈액제제	30,079	14,336	18.4	
5	미국	43,305	20,236	21.7		5	의약품	26,561	12,924	22.0	
6	이탈리아	34,841	15,776	11.6		6	원유	26,228	10,096	-11.9	
7	스페인	30,662	13,759	12.9		7	반도체 제조용 장비	24,181	9,507	15.6	
8	폴란드	27,259	12,495	19.4		8	광물 관련	20,924	8,992	2.3	
9	중국	23,625	7,809	-6.4		9	의료기기	19,050	8,081	1.7	
10	스웨덴	19,701	7,723	-18.7		10	정형외과용 기기	13,899	6,256	7.5	

자료: 한국무역협회(HS코드 4단위 기준)

□ 네덜란드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주요 수입국) '25년 5월 기준, 네덜란드 주요 수입 대상국은 독일, 중국, 미국, 벨기에, 아일랜드 순

네덜란드 10대 수입국 및 수입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24년	'25년 5월					'24년	'25년 5월		
	총 수입	752,458	318,447	3.4			총 수입	752,458	318,447	3.4	
1	독일	106,237	45,194	3.4		1	원유	55,910	19,432	-21.3	
2	중국	109,543	43,860	5.0		2	컴퓨터	38,713	16,777	10.5	
3	미국	68,248	28,272	-4.2		3	통신기기	36,853	14,053	1.5	
4	벨기에	60,376	23,891	-5.7		4	혈액제제	26,351	13,116	25.9	
5	아일랜드	23,036	11,145	28.8		5	석유제품	31,712	11,535	-19.3	
6	영국	26,444	10,366	-3.5		6	승용차	18,740	8,288	17.9	
7	프랑스	21,608	9,372	4.7		7	기타 광물성 연료	8,594	7,460	110.7	
8	이탈리아	18,518	7,738	-1.0		8	의약품	16,967	7,235	-2.4	
9	폴란드	15,747	6,593	3.4		9	의료기기	16,653	6,933	-0.2	
10	노르웨이	14,820	6,552	5.4		10	천연가스류	11,621	5,430	11.9	

자료: 한국무역협회(HS코드 4단위 기준)

- (주요 수입품) '25년 5월 기준, 원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증감) 컴퓨터와 통신기기, 혈액제제, 승용차, 천연가스류 수입은 확대됐지만, 석유제품과 의약품 수입은 감소세를 보임

* '25년 5월 네덜란드 상품 수입은 전년 대비 0.5% 감소, 원유·천연가스·식음료·담배·기계류·전기기기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네덜란드 통계청(CBS) 발표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동향) 한국과 네덜란드의 무역은 '25년 상반기 및 누계 기준으로 증가 추세
- 교역 규모
 - (수출) '25년 7월 누계 기준 수출은 5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0억 6,000만 달러)에서 +25.6% 증가
 - (수입) 수입 또한 '24년 7월 누계 35억 4,000만 달러(-27.0%)에서 '25년 동기 55억 4,000만 달러(+56.7%)로 확대
 - (무역수지) '24년 동기 흑자(+5억 2,000만 달러)에서 '25년 동기 적자(-4억 5,000만 달러)로 전환된 상황

- 주요 교역 품목

- (한국의 對네덜란드 수출) '24년 7월 누계 기준 주요 품목은 반도체 보울·웨이퍼, 승용차, 석유제품 등 전통적 품목 중심
- '25년 동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전산 기록매체, 의약품 등 고기술 품목이 상위를 차지하며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는 흐름
- 특히 메모리 반도체(+603.5%), 전산 기록매체(+89.5%), 의약품(+176.3%) 등 첨단 품목의 급격한 증가세가 수출 확대를 견인한 양상

한국의 對네덜란드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6,799	-0.8		총 수출	5,097	25.6
1	전산기록매체	614	297.7	1	메모리반도체	551	603.5
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536	58.1	2	전산기록매체	526	89.5
3	전기자동차	494	-2.6	3	의약품	391	176.3
4	의약품	333	3.6	4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300	-18.8
5	하이브리드자동차	274	71.4	5	제트유	283	787.7
6	기타 합금철	274	-39.2	6	전기자동차	253	16.3
7	고압케이블	230	637.1	7	기타 합금철	195	-2.9
8	스마트폰	199	74.0	8	하이브리드자동차	137	-28.2
9	승용차용타이어	182	24.0	9	승용차용타이어	102	-17.9
10	메모리반도체	174	-20.7	10	기타화학공업제품	97	114.6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네덜란드의 對한국 수출) 한국 수입 품목 중 중요한 항목으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의약품 등이 포함됨
- '24년 7월 누계에서는 반도체 웨이퍼·돼지고기·의약품 등 전통 품목이 주를 이뤘으나, '25년 동기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30억 8,300만 달러)와 부품(9억 5,500만 달러)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프로세서·콘트롤러, 부타디엔 등 소재·장비 품목 증가세가 뚜렷하며, 네덜란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급지로 위상이 강화되는 양상

한국의 對네덜란드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8,174	1.4		총 수입	5,545	56.7
1	반도체제조용장비	7	-89.2	1	반도체제조용장비	3,083	88.1
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536	58.1	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955	112.1
3	돼지고기	0	0.0	3	돼지고기	90	-2.4
4	기타 낙농품	0	0.0	4	기타 낙농품	86	6.6
5	나프타	41	0.0	5	나프타	72	50.2
6	의약품	333	3.6	6	의약품	72	18.1
7	기타 화물자동차	1	-27.9	7	우라늄	55	0.0
8	기타 운반하역기계	13	-82.8	8	프로세서와 콘트롤러	50	1,515.3
9	전자현미경	0	-50.3	9	전자현미경	47	24.6
10	부타디엔	0	0.0	10	부타디엔	44	238.5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시장점유율) 한국산 고기술 상품의 네덜란드 수입 내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對네덜란드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전산 기록매체의 증감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현지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및 품질 신뢰도가 강화되고 있음
 - 특정 품목의 높은 증감률은 수출 구조가 기술 집약적(High-tech) 품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함
- (정책적 배경) 한국-네덜란드 산업 협력 강화의 구조적 기반
 - 양국은 민주적 가치와 혁신 생태계를 공유하며, 반도체·디지털 인프라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보유함
 - 기술 협력은 반도체·AI·양자 기술 등으로 확대되며 양국 관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협력 흐름 속에서 R&D 국제화를 추진하고, 네덜란드는 혁신 확장 및 인재 확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추세임
 - 양국은 기술 선도형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산업 리더십 강화를 공동 목표로 추진 중임 (ROK-NL Forum 2025 Position Paper, HCSS, '25년 7월)
- (상품 위상 변화) 최근 네덜란드 언론 및 정부 발표에서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 강화 움직임이 지속
 - 반도체 산업, 기술 혁신 분야에서 공동 논의가 진행되며, 한국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
 - 이는 한국산 첨단제품이 단순 공급자를 넘어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위상 변화를 보여줌

□ 네덜란드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네덜란드 진출전략 :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A사(현지 B사에 수출 성약)

- 제품(Scrubber, Chiller)의 비교우위
 - (Scrubber)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소계·온실가스·유해가스 처리 효율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
 - * Edwards, Pfeiffer 등 해외 장비 대비 가격 경쟁력과 공정 맞춤형 커스터마이즈 대응에서 강점 보유
 - (Chiller) 반도체 장비·공정의 온도 안정성 확보 및 고효율 냉각 기술 적용
 - * 에너지 효율성을 기반으로 전력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 EU의 그린딜(Green Deal), 탄소중립산업법 (Net Zero Industry Act)과 정책적으로 부합
- 필수 인증
 - CE(Conformité Européenne) : EU 내 기계류, 전기·전자 장비 판매 시 필수
 -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2011/65/EU) :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제한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C 1907/2006) : 장비에서 사용·배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냉각액, 세정가스 등)이 대상일 경우 등록 또는 보고 의무 발생
- 성약 소요기간 : 1년 9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23년 10월 : 2023년 10월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GP(Global Partnership) 사업 참가 후 현지 바이어와 1차 상담 및 후속 미팅 진행
 - '24년 : 계약 체결, 공급 관계 구축
 - '25년 7월 : 성약으로 이어지며 본격 납품 개시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한국 업체들은 종종 ASML과 같은 네덜란드 대형 장비 업체에 직접 수출을 기대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1차 협력 업체를 통한 간접 진입이 더 효과적이며, 규모는 작더라도 현지 전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을 파트너로 삼는 전략이 권장됨



성공 사례로 보는 네덜란드 진출 전략 : 음료 수출 기업 C사(현지 D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음료)의 비교우위
 - 국내 식음료 도매 유통 경력과 국내 H사 음료 수출 판권을 기반으로 안정적 공급 역량을 확보
 - 자사 브랜드 음료를 PET, 파우치, 캔 등 다양한 포맷으로 보유하여 바이어·유통채널별 맞춤형 공급 가능
 - 독일 REWE, Lidl 등 메인스트림 유통망 입점을 통해 검증된 품질과 대량 공급 체계를 보유
- 필수 인증
 - EU 식품안전 관련 인증(HACCP, ISO22000 등)
 - EU 식품 정보 규정(FIR)에 따른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
 - 포장재 재활용 규정(EPR) 등 환경 관련 의무

- 성약 소요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24년 : 봄업코리아 및 독일 지사화 사업 참여로 초기 유럽 네트워크 확보
 - '25년 2월 :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현지 B2B 수입업체와 수출 상담 후 후속 협의로 MOU 체결
 - '25년 5월 :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자사 브랜드 음료 및 H사 수출 판권 보유 음료의 첫 컨테이너 수출 완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네덜란드 시장에는 이미 유사 품목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같은 제품군에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진출 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네덜란드 진출은 주변국 공급망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무역관 및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면 불필요한 중복과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약으로 이어갈 수 있음



성공 사례로 보는 네덜란드 진출 전략 : 식품 기업 S사(현지 A사에 수출 성약)

- 제품(스낵)의 비교우위
 - S사는 스낵뿐 아니라 김치, 소스, 김 등 다양한 식품 제품군과 자체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어가 요구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자체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 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공급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주요 경쟁 우위로 작용함
- 필수 인증
 - EU 식품안전 관련 인증(HACCP, ISO22000 등)
- 성약 소요기간 : 6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25년 5월 :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에서 열린 PLMA 참가 후, KOTRA 암스테르담무역관이 주선한 바이어와 미팅
 - '25년 10월 : 독일 쥘른에서 열린 Anuga 전시회 참가 후, 암스테르담을 방문하여 바이어와 떡볶이 스낵 최종 단가 협의 진행하였으며, 같은 달 바이어가 제시된 신규 단가에 최종 동의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유럽 주류 유통시장(Mainstream Market)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바이어들이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이미 유럽 내에서 트렌드가 형성된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 바이어는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격 경쟁력·공급 안정성·제품 차별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시장 진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다. 산업

□ 반도체 산업 개요

- (산업 규모 및 위상) 네덜란드는 ASML, NXP, ASM 등 세계적 기업을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21년 기준 매출 390억 유로, 전 세계 시장점유율 9%를 기록하였으며, '24~'29년 연평균 8.6% 성장이 전망되며, AI·5G·고성능 칩 수요가 주요 동력
 - (정부 지원) '24년 3월 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25억 유로 규모의 '베토벤 플랜'을 발표, 인프라·교육·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 브레인포트(Brainport)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을 강화
 - (포토닉스 투자) '24년 11월 네덜란드 정부와 EU가 3억 8,000만 유로 규모의 포토닉스 칩 파일럿 라인 조성 계획 발표. 이 중 1억 3,300만 유로가 네덜란드에 투자돼 에인트호번·엔스헤데에 생산 시설 구축 예정
- (수출 통제) '23~'25년 네덜란드 정부는 첨단 DUV·EUV 노광장비 등 특정 반도체 장비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춘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안보 리스크 관리와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확대

최근 네덜란드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HS Code	산업	(단위: %)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2710	석유 및 역청유 제품	6.9	6.1	5.5
8471	무선 통신 기기	4.1	4.4	4.3
8517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장치(컴퓨터 등)	4.4	4.3	4.1
3002	인체·동물 혈액, 면역혈청, 백신 등	2.9	3.5	3.9
8486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장치	2.6	2.8	3.0

자료: GTA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대기업 중심 확장
 - (NXP) '25년 1월 오스트리아의 TTTech Auto를 약 6억 2천5백만 달러에 인수하여 자율주행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SDV) 측면의 역량을 강화(EU-Startups, '25년 7월 7일)
 - (ASML) AI 및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로 주문이 급증하면서, 향후 생산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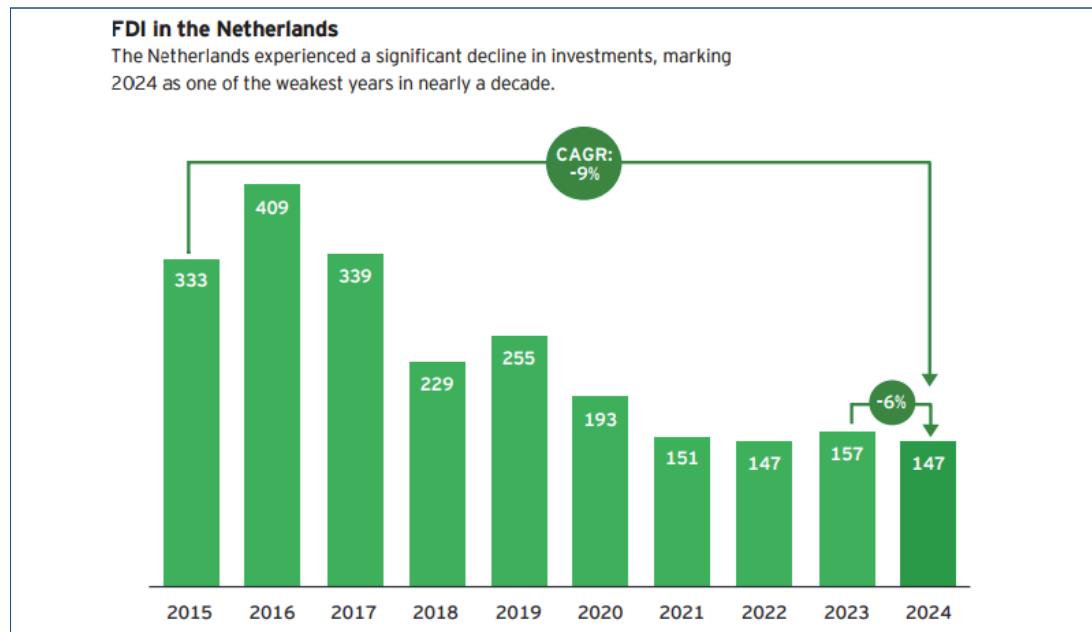
- 포토닉스 분야 확장
 - (공공-민간 컨소시엄) TNO(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 PhotonDelta(국가 포토닉스 산업 거점), Smart Photonics(통합 포토닉스 웨이퍼 제조 기업) 등이 참여한 네덜란드 주도의 컨소시엄이 EU Chips Act 지원을 받아 에인트호번 하이테크캠퍼스(High Tech Campus Eindhoven)에 1억 5,300만 유로 규모의 인듐인화물(InP) 포토닉 칩 파일럿 라인 구축을 추진 중임. 본 시설은 '25년 말 착공, '27년 가동 예정임(Optica OPN, '25년 7월 1일)

라. 투자

□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프로젝트 수는 147건으로 전년 대비 6% 감소,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
 - * 네덜란드는 '16년 409건에서 '24년 147건으로 감소하며 연평균 -9% 하락, 유럽 전체 FDI 프로젝트 수는 '24년 5,383건으로 전년 대비 5% 감소(Netherlands Attractiveness Survey 2025, '25년 5월)
 - 과거 유럽 내 상위 5대 투자 유치국이었던 네덜란드는 현재 1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프랑스·영국·독일이 전체 FDI의 46%를 차지하며 선도

〈네덜란드 F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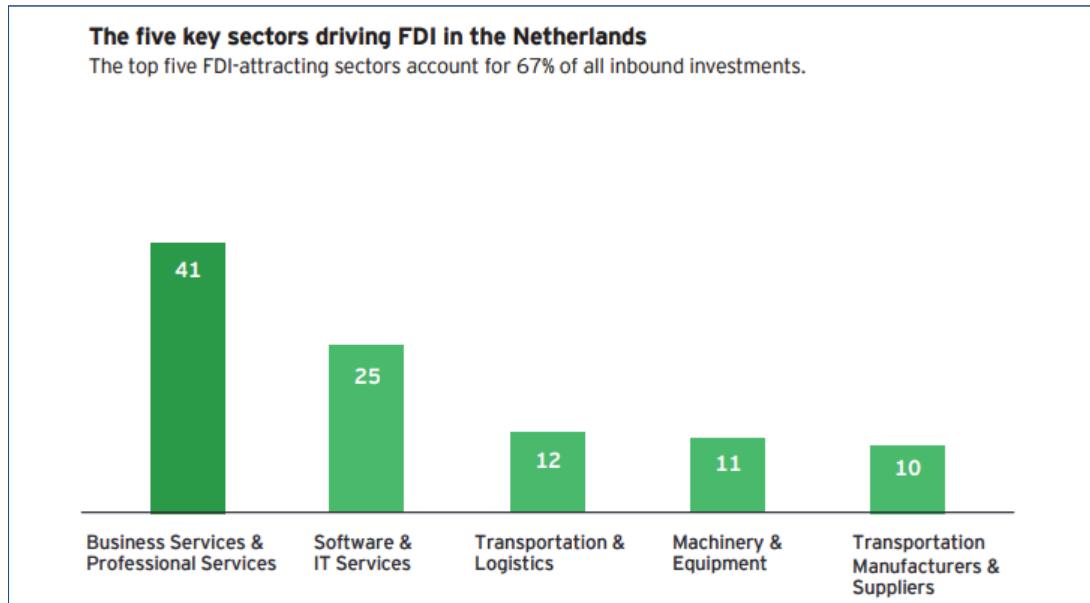


자료: EY European Investment Monitor 2025

□ 네덜란드 유치 주요 산업은 서비스와 기술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

- 비즈니스·전문 서비스(41건), 소프트웨어·IT 서비스(25건), 운송·물류(12건), 기계·장비(11건), 운송장비 제조(10건)가 상위 5대 산업군으로 전체 유입의 67%를 차지
 - 네덜란드가 여전히 전문 서비스, 디지털 경제, 물류 허브로서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 투자 매력도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네덜란드 FDI 5대 산업군〉



자료: EY European Investment Monitor 2025

□ 주요국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투자국 현황) '24년 네덜란드에 대한 FDI 주요 유입국은 미국(38건), 영국(29건), 독일(16건), 벨기에(8건), 캐나다(6건)
 - 이들 5개국이 전체 투자 프로젝트 상당수를 차지하며, 네덜란드가 여전히 서유럽 중심 국가들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산업별 특징) 대규모 제조업보다는 비즈니스·전문 서비스, IT, 본사 기능 등 소규모·서비스 중심 프로젝트에 집중
 - 특히 미국·영국계 기업이 네덜란드에 유럽 본사나 자문 허브를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 (신규 진출 사례) 미국계 SCS 컨설팅 서비스(SCS Consulting Services)는 '24년 네덜란드 해이그(The Hague)에 유럽 자문법인 SCS Consulting Services Europe B.V.를 설립했으며, 영국의 금융기술 기업 ClearBank는 암스테르담에 유럽 본사(European Headquarters)를 개설함. 또한 미국 신발 브랜드 New Balance는 '24년 암스테르담에 EMEA 본사(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본부)를 확장 이전함

□ 네덜란드 對韓 투자 확대와 첨단 산업 중심 협력 심화

- (투자 규모) 네덜란드의 對한 누적 투자 스톡은 약 32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 내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임
 - 최근 투자는 반도체 장비, 대체 단백질, 스마트 농업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임
- (산업별 특징) 반도체 분야에서 ASML, ASM 등 네덜란드 기업이 한국과 협력하며 장비 공급 및 공동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국면임
 - 식품 기술 분야에서는 프로틱스(Protix)가 곤충 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을 한국에 확산하는 사례가 나타남
 - 농식품·스마트팜 기술, AI·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네덜란드 프로틱스, 곤충 단백질 기반 한국 투자 진출 사례

- (투자 배경)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 전환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네덜란드 기업들이 곤충 단백질 등 대체 단백질 분야에서 해외 확장을 추진하는 추세
 - Invest International은 지난 2년간 네덜란드 대체 단백질 프로젝트에 총 4,800만 유로를 투자하며,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주요 사례) 곤충 단백질 선도기업 프로틱스는 Invest International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는 국면
 - 프로틱스는 블랙 솔저 플라이(Black Soldier Fly) 유충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와 농식품 부산물을 고품질 단백질, 오일, 유기 비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업적 원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곤충 사육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허용하고 있어, 네덜란드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상황
- (투자 내용) 프로틱스는 한국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연간 최대 13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신규 시설을 설립할 계획
 - 해당 시설은 네덜란드 본사 부지의 두 배 규모로, 음식물 쓰레기와 농식품 부산물을 지속가능한 단백질, 오일, 비료로 전환하는 순환형 식품 시스템 확립에 기여할 전망
- (의의) 이번 사례는 네덜란드의 혁신적 식품 기술과 한국의 선진 음식물 쓰레기 관리 체계가 결합한 대표적 투자 협력 모델로 평가
 - * 자료 : <https://investinternational.nl/article/scaling-alternative-proteins-with-insects-from-the-netherlands-to-south-korea>

□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 급증과 법인 설립 축소의 양극화 흐름

- (투자 규모) 한국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최근 변동성을 보였으나 '24년 이후 급증세를 기록하며 전략 산업 중심으로 확대되는 국면임

한국의 대네덜란드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금액(건)	증감률	금액(건)	증감률	금액(건)	증감률	금액(건)	증감률
투자 금액	322(50)	-248.3	290(65)	-10.0	673(65)	232.1	1,251(17)	-
신규 법인 설립 건수	10	-41.2	9	-10.0	8	-11.1	2	-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법인 설립 동향)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22년 10건(-41.2%), '23년 9건(-10%), '24년 8건(-11.1%), '25년 1분기 2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흐름임
 -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와 달리, 소규모 신규 법인 설립은 축소되는 양극화 현상이 확인되는 국면임
 - 투자 금액은 확대되나, 투자 건수 및 신규 법인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추세임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식품기업 N사, 네덜란드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N사는 '2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법인을 설립하며, 유럽 시장 내 라면·스낵 판매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추진함
- (성공 사례) 암스테르담을 유럽 본부로 삼고, 로테르담 항만 물류망과 결합해 유럽 주요 리테일 채널 진출을 본격화하고 현지 유통망을 확장하며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시장점유율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시사점) 식품·소비재 기업은 네덜란드의 유럽 내 물류 허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진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초기에는 3PL(제3자 물류) 물류와 현지 리테일 공동 프로모션을 결합해 위험 분산과 브랜드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바이오 기업 C사, 라이덴(Leiden) 클러스터 기반 생산 역량 확대

- (기업 정보) 바이오 기업 C사, 네덜란드 라이덴에 기반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제조 기업으로, '25년 백신·유전자치료제·면역치료제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성공 사례) 라이덴 바이오사이언스파크의 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상·상업용 제조, 제형·총전 공정 역량을 확충함. 이를 통해 유럽 규제 요건에 맞춘 현지 생산 체계를 확보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기반을 강화함
- (시사점) 바이오·제약 기업은 네덜란드의 라이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전문 생태계를 활용해 규제 적합성·공급망 내재화를 조기 확보할 필요가 있음. 연구기관·대학과의 협력 및 현지 인력 리크루팅을 병행하면 유럽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네덜란드 투자 진출 시 인사·노무 부담과 안보 기반 투자 심사 강화

- (인사·노무) 직원 장기 병가 시 임금 지급 및 재통합 관리 의무 부담
 - 직원 병가 시 고용주는 최대 104주(2년)까지 최소 70%(1년 차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CAO)에 따라 100%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
 - 고용주는 게이트키퍼법(Wet Verbetering Poortwachter)에 따라 병가 근로자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재통합 절차(문제 분석·복귀 계획·이행평가 등)를 정해진 기한 내에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노동청(UWV)의 임금 지급 연장 제재(최대 1년)가 부과될 수 있음
 - 고용주는 산업보건서비스(Arbodienst)와 계약해야 하고, 장기 결근 시 상담·검사·직무 조정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결근보험(Verzuimverzekering) 가입 시 보험료 부담도 지속됨
- (투자 규제) 안보 리스크 기반 외국인 투자 심사
 - 외국인 투자 자체가 원칙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나, 국가안보 리스크가 있는 경우 VifD법(투자·합병·인수 보안심사법)에 따른 사전 신고·승인 대상이 됨
 - 핵심 인프라 운영 기업, 민감·고도민감 기술 보유 기업 등이 주요 심사 범주이며, '25년 기준 AI·바이오·나노소재 등으로 범위가 확대 추진 중
 - '26년부터는 방산·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별도 심사가 도입될 예정으로, 거래 종결 전 승인 지연·조건부 승인·불허 가능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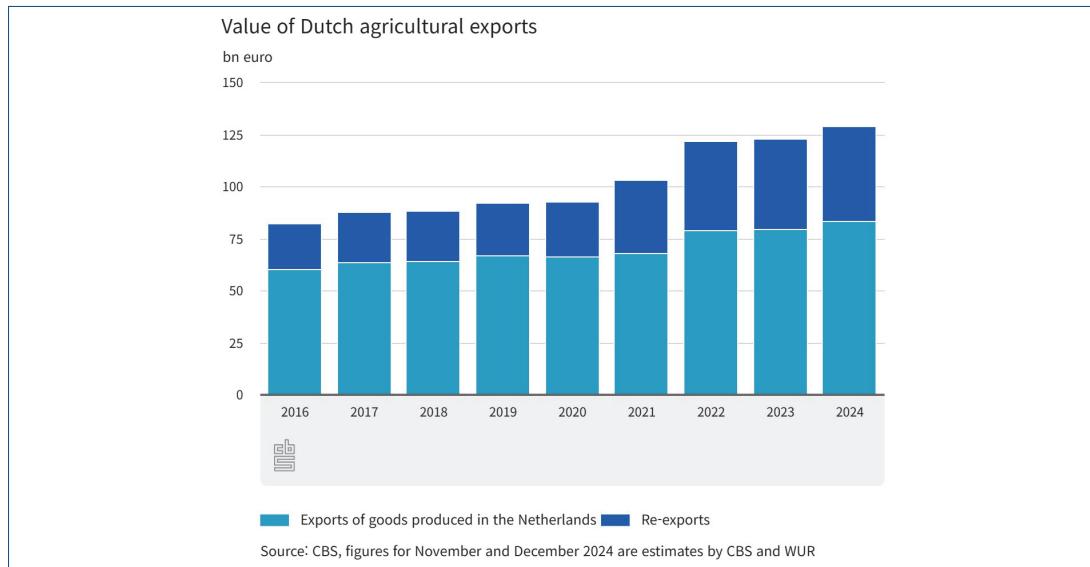
2. 유망 산업

가. (소비재) 농식품 산업

▣ 농식품 수출국 세계 2위 네덜란드

- (Top Sector) 농식품은 네덜란드 경제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
 - 네덜란드는 유제품, 육류, 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식품은 국가 GDP와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산업 집적지) 푸드밸리(Food Valley) 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
 - 와게닝겐 대학(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다국적 식품 기업이 밀집해 있는 푸드밸리는 식품 산업의 연구·개발·가공이 집중되는 하브로, 글로벌 식품 혁신과 기술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 중(무역 규모 및 구조) 가공·물류 역량을 기반으로 한 무역 시스템
 - '24년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 총액은 1,289억 유로로, 전년 대비 4.8% 증가
 - '24년 기준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의 약 65%는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 나머지 35%는 수입된 농식품을 재수출하는 구조를 보임. 이는 네덜란드가 단순 농산물 생산국을 넘어, 가공 및 물류 역량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임을 증명(CBS, '25년 1월 17일)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액 및 재수출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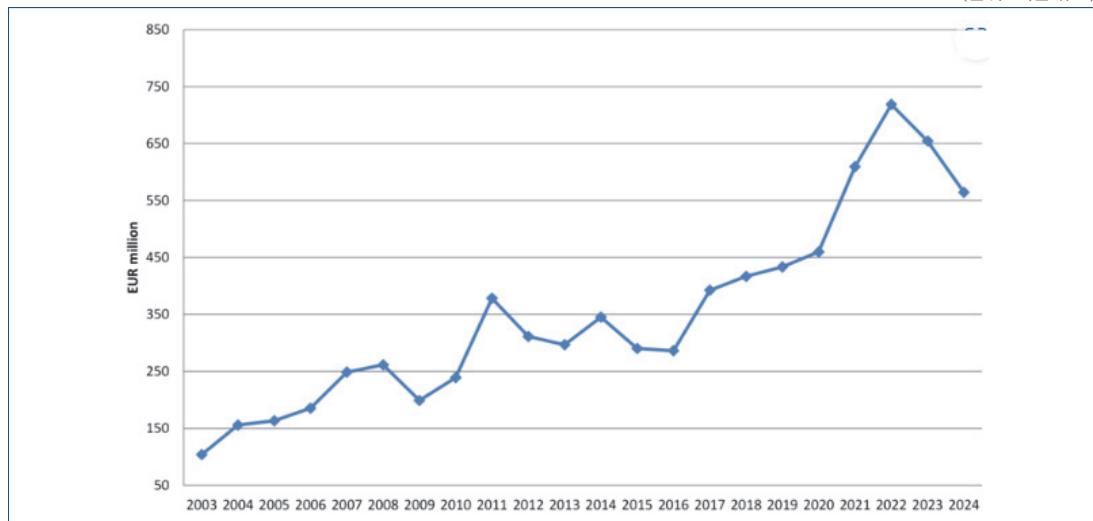


자료: cbs.nl

- (네덜란드 對한 수출 감소) '24년 네덜란드의 對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5억 6,4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13.8% 감소

〈연도별 對한국 주요 농산물 수출액〉

(단위: 백만 유로)



자료: agroberichtenbuitenland.nl

- (감소 원인) 원화 약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독일의 돼지고기 수출 재개가 겹치며 수출이 위축
- (한국산 수입 증가) 반대로 한국의 對네덜란드 농식품 수출은 뚜렷한 성장세로 '24년 라면·과자류 등 곡물·곡분 조제품 11억 8,600만 달러(+44.8%), 김치 등 채소·과실 조제품 2억 8,500만 달러(+43.4%), 된장·고추장 등 소스류 2억 3,400만 달러(+35.3%)를 기록

'22~24년 對네덜란드 10대 농식품 수출

(단위: 만 달러)

순위	품목	수출액			증감률 (2024/20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곡물·곡분의 조제품	46,130	81,888	118,579	44.8
2	채소·과실의 조제품	18,183	19,909	28,547	43.4
3	조제 식료품	11,985	17,468	23,628	35.3
4	음료·주류·식초	12,760	16,161	19,019	17.7
5	식용의 채소	7,235	5,418	6,774	25.0
6	어패류	12,925	3,943	4,154	5.4
7	식물성 수액	3,459	2,215	1,764	-20.4
8	채유용 종자·과실	1,181	1,348	1,497	11.0
9	육·어류 조제품	866	941	1,293	37.5
10	커피·향신료	1,289	1,182	1,193	0.9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3월 14일)

□ 네덜란드 농식품 대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지속가능성 전환 동향

- (FrieslandCampina) 지속가능 농업과 원가 조정 기반 수익성 확보
 - FrieslandCampina의 '25년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4% 증가하였고, 운영 이익도 개선되었는데, 이는 저가 제품보다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늘리고, 동시에 원자재·물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일부 반영한 결과(Royal FrieslandCampina N.V. Half-year report 2025, '25년 7월 18일)
 - 낙농업자들이 지속가능성 기반(Regenerative Agriculture)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Lidl 등 유통사와 협업하여 재생농업 시범 프로젝트(Regenerative Agriculture Pilot)를 진행 중

네덜란드 농식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FrieslandCamp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유제품 협동조합 중 하나로, 100여 개국에 유제품 수출 - '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4% 증가하여 약 68억 유로 기록 - Lidl, ReGeNL과 협력하여 네덜란드 내 30개 낙농장에서 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 시범프로젝트 시작 - Milcobel(벨기에 유제품 협동조합)과 합병 제안(Publication Of Merger Proposal)하였으며, 합병 결정은 '25년 말(FrieslandCampina 조합원 회의 및 Milcobel EGM) 예정
Vion Food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10대 육류 가공업체 중 하나 - 독일 내 소고기(Beef) 사업을 Tönnies Group에 매각하는 상업적 합의 체결(경쟁 당국 승인 절차 진행 중) - 구조 조정 및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재무 유연성 확보, Benelux 지역 Pork·Beef 부문 실적 개선 - EU CSRD 규제 대응 위해 2024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 보고 포함
DSM-Firmeni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양·소재 전문 기업. 와게닝겐 등과 협력해 지속가능 식품 성분 개발 - 사료 효소(Feed Enzymes) 및 동물 영양 일부를 매각하고, 인간 건강 영양·향미 중심으로 전환 중 - Taste, Texture & Health(TTH) 부문을 핵심 성장축으로 두고, 식물성 단백질·발효소재·클린라벨 수요 대응 - 변동성이 크던 비타민 사업에 대해 수익성 회복 프로그램 추진 중

자료: FrieslandCampina, Euromeat News, Vion Food Gruop, DSM-Firmenich 공식 발표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및 진출 동향

- (첨단 식품 기술 협력 수요) 네덜란드는 식품 기술 혁신을 위해 해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배양육·식물성 단백질 등 푸드테크 분야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 '25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는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대체 단백질 분야 MOU를 체결하고, 전주대·원광대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이 EU 연구프로그램(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목표로 대체 단백질 공동 연구를 진행 중

- (K-푸드 유통 확산) 네덜란드 현지에서 한식 및 한국 식품 인기가 상승하면서 K-푸드의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 * S사의 유럽법인은 'Wheel of Retail 2025'에서 3개 부문 수상하며 현지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기회요인) 지속가능 식품 혁신과 EU 단일시장 접근성
- (지속가능 식품 혁신) 네덜란드 식품 산업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심으로 한 구조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정부는 축산업의 환경 부하를 줄이고 미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체단백질, 스마트팜, 지속 가능 농업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며, 곤충단백질·세포배양육·식물성 대체식품 같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 * 네덜란드 정부는 스마트팜·지속가능 농업기술을 핵심 혁신 분야로 지정하고 공공-민간 공동연구(PPP)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Program 2 : 스마트 농업·원예 기술(Smart Technologies for Agriculture and Horticulture)'에 포함되어 정밀농업·로보틱스·센서·디지털 트윈 등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 PPP 프로젝트는 1건당 최대 150만 유로까지 지원되며, 평균 4년간 운영됨. 중소기업은 총 비용의 최대 40%, 혁신 기업은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공공-민간 공동 투자 비율은 50 : 50 구조이며, 이 중 최소 30%는 민간 현금 기여금으로 충족해야 함. '26년 총 예산은 1,020만 유로로, 이 중 약 450만 유로가 Wageningen Research(WUR)의 스마트 농업 연구 분야에 배정됨(PPP Call 2025 – Knowledge and Innovation Agenda : Agriculture, Water & Food)
 - 지속가능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확산으로 한국 기업은 식물성 대체육·발효식품·식품 ICT 기술 분야에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유럽 시장 교두보) 네덜란드는 EU 단일시장 중심에 위치하여 독일·프랑스 등 주요 소비시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로테르담 항만을 통한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럽 내 공급망 거점으로서 강점
 -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의 75%가 유럽 역내에서 소화될 만큼 유럽시장과 긴밀히 통합되어 있어,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를 거점으로 삼으면 물류비 절감 및 시장 확장에 유리
 - 현지 소비자는 외국 음식과 새로운 미식 트렌드에 개방적이어서 K-푸드 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나. (소비재) 화장품 산업

□ 개요

- (시장 규모) 네덜란드의 화장품 시장은 '24년 기준 약 40억 5,000만 유로 규모
 - * '24년 유럽 화장품 시장 규모 : 유럽 전체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소매 매출은 약 1,040억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네덜란드는 이 중 약 40억 5,000만 유로를 차지하며 6위를 유지

- (성장 동력) '24년 네덜란드 화장품 시장의 성장 요인은 판매량 증가가 아닌 가격 상승에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제품이나 지속가능·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 비중이 커져 전체 매출이 늘어난 것에 기인함
- (소비 동향)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천연 성분·클린 뷰티 제품에 더 관심을 가지며, 임상 효능을 입증한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
- 수출입 동향
 - (수입) 네덜란드는 '24년 전 세계 화장품·스킨케어 수입국 9위로, 수입액은 약 19억 달러(약 17억 유로) 수준.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중국·일본 등 글로벌 생산국
 - (수출) '24년 네덜란드의 화장품 수출액은 약 18억 유로로 전 세계 12위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벨기에·독일·프랑스 등 인접 유럽 국가임(Beauty Cosmetics and Skincare Exports by Country, '25년 5월 24일)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글로벌·현지 기업 경쟁 구도
 - (L'Oréal) '24년 네덜란드 화장품 시장점유율 1위 기업 로레알파리, 가르니에, 세라비 등 다수 브랜드를 보유하며 스킨케어·헤어·색조 전 영역에서 강세
 - (Rituals) '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21억 유로를 기록하며 전 세계 매장과 온라인 채널 확장을 지속 중. B Corp 재인증 획득, 리필 프로그램을 통해 800만 개 이상 판매 등 지속가능 경영 강화

네덜란드 화장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L'Oré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시장점유율 1위, 다수 브랜드 보유, 프리미엄 제품군 강화 - (AI 협업 강화) NVIDIA와의 협업으로 3D 디지털 랜더링, AI 기반 광고 및 제품 체험 강화 프로젝트 진행 중 - (Benelux 인플루언서 마케팅 변화) L'Oréal Benelux 지역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정을 '26년부터 Samy Road·Team5PM으로 이전하기로 계약 완료
Ritua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매출 21% 증가(21억 유로), 전년 대비 약 23.5% 성장; '25년에는 240개 이상의 새 매장 개설 계획 중 - (웰빙 경험 공간 확장) 'Mind Oasis' 콘셉트를 숨 내부 및 공항 등 여행객 공간으로 확대, Schiphol 공항 지점에 첫 공항 Mind Oasis 오픈함 - (시즌 컬렉션 강화) '25년 가을·겨울 시즌 한정판 Intuitia Collection 출시 예정, 향·패키징 등의 차별화 요소 활용

자료: Euromonitor, Moodiedavittreport, Cosmeticsbusiness, L'Oréal, Marketingreport

• K-뷰티 진출 동향 및 협업 수요

- 네덜란드에서는 SNS·인플루언서 기반으로 K-뷰티 확산세가 뚜렷하며, 한국산 시트 마스크팩은 Hema, Action 등 대형 생활용품 체인에서 판매 중
 - *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석기관 Kolsquare의 'Top 100 Beauty Brands on Instagram in the Netherlands('25년)'에 따르면, 네덜란드 뷰티 시장은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브랜드 노출과 소비자 참여 확대가 주요 흐름으로 나타남
 - * 한국 브랜드 Dr. Jart+(54위), Laneige Europe(65위)이 상위 100대 브랜드에 포함되었으며, 두 브랜드 모두 EMV(Earned Media Value), KOL(Key Opinion Leader) 참여 수, 콘텐츠 게시 건수, 참여율(Engagement Rate) 등 주요 인플루언서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임. 이러한 결과는 K-뷰티가 SNS와 인플루언서 생태계를 통해 네덜란드 내 인지도와 시장 점유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함
- 현지 소비자들은 비건·유기농·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한국 기업은 해당 분야 기술력을 활용해 협업 가능성이 큼

• 화장품 인증 요건

- (EU 화장품 일반 요건) EU 단일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면 EU 화장품규정(EC) No 1223/2009를 따라야 하며, EU 내 책임주체(Responsible Person)가 제품을 출시 전에 CPNP(EU의 화장품 제품 등록 포털,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에 제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 통지해야 함
- (동물실험 금지) EU는 화장품과 그 성분에 대해 △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EU 내 판매를 금지함. 해당 규제는 '13년부터 모든 화장품에 전면 적용되고 있음
- (성분 규제) 화장품은 규정 부속서에 명시된 금지물질·제한물질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은 안전성 평가(Safety Assessment)를 거쳐야 하고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을 EU 내에 보관해야 함
- (라벨) 제품 라벨에는 필수 기재 사항(성분, 사용법, 책임 주체 정보 등)을 판매국의 공용어로 표기해야 하며, 네덜란드 판매용은 네덜란드어 표기 의무, 영어는 보조 표기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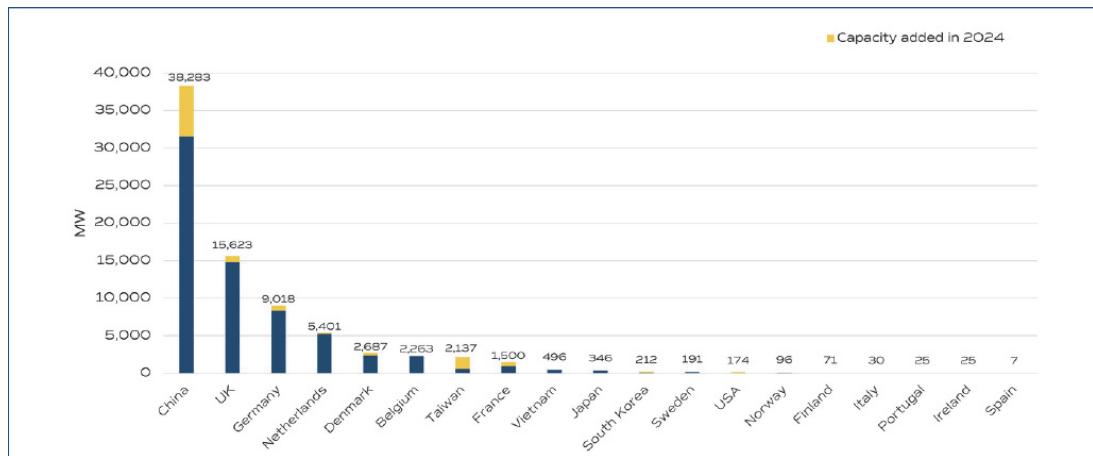
다. (에너지) 해상풍력

□ 해상풍력 산업 현황 및 발전 용량 동향

- (산업 규모 확대) 네덜란드는 '24년 기준 약 4.7GW의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발전량은 약 150억 kWh 수준(CBS, '25년 3월 10일)
 - (정부 로드맵) 네덜란드 정부는 '32년까지 21GW의 해상풍력 설비를 구축하고, 이후 단계로 '40년 까지 약 30~40GW 규모의 설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함. 이는 기존 50GW 목표를 조정한 것으로, 산업 전기화 지연과 건설비 상승 등 현실적 요인을 반영한 결과임
 - * 네덜란드 정부는 '북해 풍력에너지 인프라 계획(North Sea Wind Energy Infrastructure Plan, '25년 7월)'에 따라 단계적 인프라 확충 및 신규 단지 입찰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확충 로드맵의 기반을 마련 중임(Netherlands Enterprise Agency(RVO), '25년 7월 29일)

- (국가별 설치 현황) '24년 말 기준,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은 78.5GW 수준으로 집계됨
 - (순위) 중국이 38GW로 세계 최대 해상풍력 보유국이며, 이어 영국(15.6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순으로 설치 규모가 형성
 - (네덜란드) 누적 4.9GW로 유럽 3위 해상풍력 보유국으로 부상
 - (한국) 제주 한림 해상풍력(100MW) 준공을 포함해 누적 212MW에 도달하며 초기 시장 형성 국면에 진입함(Global Offshore Wind Report 2024, '25년 4월)

〈국가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MW)〉



자료: World Forum Offshore Wind, Global Offshore Wind Report 2024, '25년 4월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지역 다변화 움직임

- (공급망 병목과 비용 상승) '24~'25년 유럽 해상풍력 산업은 핵심 부품(블레이드·타워·케이블)의 생산 병목과 철강·레진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유럽 내 주요 부품공장은 이미 최대 가동률에 도달했으며, 고비용 구조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과 입찰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상황
- (해상 시공 장비 부족) 해상풍력 설치선 등 시공 장비의 글로벌 수요가 '30년까지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프로젝트는 베트남,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과 유사한 수요 성장세 속에서 시공 선박과 기자재 확보를 위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
- (비유럽 협력 필요성 제기) 중국에서 생산되는 풍력 기술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 프로젝트의 비용 절감 및 납기 리스크 완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유럽 기업들은 단일 지역(유럽) 내 공급망에만 의존할 경우, 원가·무역·납기 리스크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급선의 지역 다변화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REGlobal, Rising Supply Chain Risks in the European Wind Sector, '25년 8월 18일)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글로벌 디벨로퍼 참여) Ørsted, Vattenfall, RWE, Eneco·Shell 등이 네덜란드 해상풍력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IJmuiden Ver와 Hollandse Kust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으로 해당 기업들은 '30년까지 수 GW 규모의 신규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양 엔지니어링 강자) 네덜란드의 Boskalis와 Van Oord는 해양토목·준설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기초 구조물 설치, 케이블 부설, EPC 전반을 수행하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 Boskalis는 '24년 실적 발표에서 에너지 부문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상풍력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Van Oord 역시 국내외 프로젝트 수주를 지속 확대하면서 글로벌 EPC 강자의 입지를 강화 중
- (제조 기반 확충) 모노파일 전문 기업인 Sif Grou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4년 한국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했음
 - * 현재 로테르담 인근에 초대형 모노파일 생산기지를 확장 중으로, 향후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프로젝트까지 수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 중이며, 이는 한국 기업이 현지 제조사와 협력해 공동 진출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한국 기업은 △ 대형 구조물 및 강재 부품 공급, △ 설치 장비·EPC 협력, △ 운영·유지보수(O&M) 디지털 솔루션, △ 해상풍력-수소·ESS(에너지 저장장치) 연계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 기회
 - 스마트 유지보수, 디지털 트윈 기반 예측 정비, 고효율 해저케이블 분야는 현지 수요는 크지만, 기술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

□ 산업 환경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정책 기반 성장) 네덜란드 정부는 북해를 해상풍력의 '전력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 중으로, '50년 70GW라는 유럽 내 최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함
 - 이러한 계획은 EU의 그린딜, REPowerEU, 북해 정상회의 합의와 긴밀히 연계돼 단일 국가 차원을 넘어 역내 전력공급망 구축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향후 신규 프로젝트 발주와 국제 공동 입찰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급망 다변화) 현지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 유럽 공급사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북미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 중
 - 한국 기업은 강재·케이블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ICT 기반 모니터링, 예측 정비 솔루션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현지 수요와 맞물려 유망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을 수 있음
- (항만·물류 인프라)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에이마워던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전용 터미널과 물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 기자재 운송·설치·유지보수 활동 전반에서 해외 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조선·해양 운송 분야의 노하우가 경쟁 우위로 작용할 수 있음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G2G) 한국–네덜란드 공급망 및 반도체 협력 강화

- (한국–네덜란드 장관 회담) '25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네덜란드 산업 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협력 확대,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 필요성에 합의함
 - (첨단 산업 협력 확대)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강화하고, ICT·바이오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논의
 -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 조달과 수출 통제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
 - (반도체 협력 기반 확대) '23년 12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양국 간 정상급 교류를 계기로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Korea–Netherlands Semiconductor Alliance)과 퓨처 칩스 아카데미(Future Chips Academy)가 출범함. 이를 통해 양국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및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The Hagu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ROK–NL Forum 2025 Position Paper, '25년 7월 15일)
- (네덜란드 혁신 미션) 네덜란드 기업청(RVO)은 '26년 2월 9~13일 한국에서 반도체 혁신 미션을 추진, 첨단 패키징·칩 설계·차세대 장비 분야 협력 기회를 발굴할 예정
 - (협력 목적) 본 미션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와 정부 전략에 대한 통찰 제공, 지식기관·기업 간 다년간 R&D 협력 프로젝트 탐색, 한국–네덜란드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
 - (한국 반도체 위상)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개발·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 선도국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통해 '26년까지 4,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추진 중
- * 해당 전략에는 팹리스 설계,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개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네덜란드 기업과 연구기관에 협력 기회를 제공

나. 프로젝트

□ 유망 프로젝트

- 반도체 혁신 협력 심화 국면
 - (산업 전시회 연계 협력) '25년 2월 SEMICON Korea 2025에서 네덜란드 파빌리온 운영 및 기술 매칭 확대, 한국–네덜란드 기업 간 공동 R&D와 첨단 패키징 협력 기회 확산 추세
 - (정상 간 협력 의지 확인) '25년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딕 스포프 네덜란드 임시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심화를 논의한 상황(Io+), '25년 8월 12일)

- (정부 주도 혁신 미션 추진) 네덜란드 기업청(RVO,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이 '26년 2월 한국 반도체 혁신 추진을 발표, 첨단 패키징·칩 설계·차세대 장비 분야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는 국면

※ '26년 2월, 네덜란드 기업청 반도체 혁신 미션

- (미션 추진) '25년 9월 네덜란드 기업청(RVO)이 '26년 2월 한국 반도체 혁신 미션 추진을 공식 발표
- (협력 분야) 첨단 패키징(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 칩 설계, 차세대 반도체 장비 분야 중심으로 협력 기회 발굴
 - 한국 반도체 생태계와 정부 전략에 대한 현장 인사이트 제공
 - 네덜란드 기업과 연구기관이 한국 기업과 다년간 연구개발 협력 논의 가능
- (한국의 산업적 배경)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선도국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통해 '26년까지 4,22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추진 중
 - 팹리스 설계, 패키징, AI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
- (한국 기업 시사점) 네덜란드와의 공동 연구, 기자재 공급, 장비 기술 교류 등 실질적 협력 기회 확대 예상
 - * 자료: <https://hollandhightech.nl/en/news-calendar/news/innovation-mission-south-korea-semiconductor-technology?utm>

- 스마트시티·디지털 트윈 공동 연구 기반 확장 국면

- (공동 연구 보고서 발간) '25년 6월 RVO가 발표한 'A Digital Twin Landscape Study South Korea'에 따르면, 한국은 교통 혼잡, 주택난, 기후변화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측형(Predictive) 디지털 트윈 기술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임
- (환경법 시행) 네덜란드는 'Omgevingswet(환경법, '24년)' 시행을 계기로 도시 계획, 기후 대응, 모빌리티 최적화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어, 양국 간 기술 공유와 공동 실증이 유망한 협력 테마로 부각됨
- (공동 연구 수요) 한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산업단지 계획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교통 시뮬레이션·AI 기반 모빌리티 시스템을 연구, 한국국토정보 공사(LX)는 기후 대응형 디지털 트윈을 개발 중으로 네덜란드 TNO·Deltares와의 공동 연구 수요가 확인됨(A Digital Twin Landscape Study South Korea, '25년 3월 31일)
- (국제 공동 프로젝트) 국토교통부(MOLIT)가 주관하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환경·에너지 문제 해결형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시범 적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 연구기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국제 공동 프로젝트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협력 방식) 협력은 소규모 공동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점진적 확대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양국의 상이한 펀딩 구조(네덜란드는 컨소시엄 기반, 한국은 단독 수주형)를 고려할 때 공동 펀딩, PPP(민관협력사업),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참여 활용이 바람직함

〈네덜란드 기업청이 발간한 ‘A Digital Twin Landscape Study South Korea’〉



자료: www.rvo.nl]

□ (협력 유망 분야) 반도체·배터리 기술 협력 및 투자 유치 연계

- 우리 기업은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투자 유치와 파트너 발굴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산업 협력의 기반이 확장되는 추세임
 - (반도체 협력 플랫폼화) '25년 2월 19~21일 진행된 SEMICON Korea 2025에서 양국 반도체 R&D 세미나 개최, 공정·장비·후공정 분야 지식 교류 채널 정례화 흐름
 - (배터리 기술 협력) '25년 3월 InterBattery 전시회에 네덜란드 Battery Competence Cluster (NL) 참여, 배터리 소재·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재활용 솔루션 협력 파트너 발굴 국면
 - (투자 유치 이벤트 연계) '25년 6월 KOTRA-에인트호번 투자 세미나 개최, 반도체·AI·로보틱스 분야 공동 투자 발굴 진행 국면



성공 사례

- (개요) '25년 6월 한국–네덜란드 간 첨단 산업 투자 유치 세미나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개최
 - KOTRA, 네덜란드 기업청(RVO), 브라반트 주정부, High Tech NL 등 주요 기관 및 기업 참석
- (내용) 한국의 투자환경과 인센티브 정책,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 등 발표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광명테크노밸리 등 지역별 특화 지원 제도도 소개
 - 네덜란드의 첨단기술 기업들(マイクロ·나노전자, 신소재, 포토닉스 등)이 한국 진출 잠재성 및 상호 협력 가능성에 높은 관심 표명하고 한국 기업들도 기술 교류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한국 기업은 특정 지역(자유무역지구, 테크노밸리 등)의 현지 지원 체제 및 세제·인센티브 제도를 자세히 살펴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네덜란드 기업들이 성장성을 지닌 기술 분야(포토닉스, 나노전자, 신소재)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보완적 생태계(Complementary Ecosystem)'를 구축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세미나 및 매칭 이벤트가 실질적 투자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사후 follow-up(현지 방문, 후속 미팅, 파트너 확정) 체계 강화 필요함

다. 공급망

□ 반도체·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 (정책·대화 틀 진전) '25년 4월 23일 헤이그에서 열린 ROK-NL Forum 2025에서 양국 정부·산업계·전문가들은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포함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함
 -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이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강조했으며, 한국은 세계 2위 반도체 생산국, 네덜란드는 ASML을 보유한 장비 강국으로서 상호보완적 협력 기반을 확인함
 - 또한 공급망 회복력 확보와 관련해 핵심 광물 조달 안정성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한국의 대외 의존도 축소와 네덜란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뒷받침하는 협력 틀로 작동하는 국면임
- (네덜란드 측 위험 인식) '25년 7월 네덜란드 HCSS(헤이크전략연구소)는 포지션 페이퍼를 발표하며, 양국 간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첨단 산업 리더십 확대를 위해 협력을 정례화할 것을 권고함
 - '25년 9월 HCSS는 'Critical Raw Materials in Noord-Holland and Flevoland'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 내 핵심 광물이 지정학적 무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국방·의료 장비 등 주요 산업까지 공급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국 측 대응 전략) 한국은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80%에서 50%로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는 네덜란드와의 협력 확대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국면(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4, '24년 7월)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47 |
| 2. 진출전략 | 49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사무관리 내각·조기 총선 일정 등 정책 추진 동력 약화, 규제·허가 결정 지연 가능성 상존
- 반도체 수출 통제·Vifa(투자 심사)·국방비 증액·NATO 공조 강화 등 안보·산업 정책 변화 지속
 - 질소 배출·보호구역 관련 사법 판결의 정부 이행 의무화, 인허가 엄격화 흐름



경제(Economic)

- '25~'26년 완만 성장, 민간 소비·공공투자 견인, 교역 둔화의 상쇄 국면
 - 고임금·인력난 구조와 물류·에너지 비용 부담이 동시 존재, 그러나 항만·내륙 운송 네트워크 강점 유지
 - 對미·EU 역내 재수출 축 중심의 무역 구조, 품목별 변동성 확대



사회문화(Social)

- 영어 사용·디지털 수용성 최상위권, 온라인·크로스보더 소비 심화
 - 숙련 인력 부족·고령화 진행, 리스킬·업스킬 수요 확대
 - 지속가능성·윤리 조달 중시, ESG를 구매 기준으로 내재화하는 소비·조달 문화 정착



기술(Technological)

- 반도체·포토닉스·메카트로닉스 저변과 ASML 등 장비 생태계 존재
 - AI Act, Data Act, DSA·DMA 시행으로 데이터·투명성·개방 의무 강화
 - 해상풍력·수소·CCS(탄소포집저장)·디지털 트윈 등 에너지·인프라 융합 기술 수요 확대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최고 수준의 물류 허브(로테르담항·스키플공항 기반)로 재수출 중심지 역할 초고속망 및 디지털 친화 환경으로 K-뷰티·K-푸드 온라인 확산 용이 한국-네덜란드 반도체·스마트시티·식품기술 협력 등 기술·R&D 기반 교류 채널 활성화 친환경·지속가능 소비문화 정착으로 K-브랜드(뷰티·푸드) 친숙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인건비와 노동력 부족으로 유통·서비스 운영비 상승 ESG·제품안전 규제 강화로 화장품·식품 기업의 인증·표시 부담 확대 높은 생활비·물류비로 한국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비용 부담 대형 유통·리테일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 진입장벽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비건·클린뷰티 수요 증가로 K-뷰티 제품의 프리미엄 시장 진입 여지 확대 대체단백·발효식품·K-푸드 트렌드 확산으로 기능성 식품·소스류 진출 확대 가능 ESG·CBAM 대응 수요 확대에 따라 친환경 소재·포장·공정 솔루션 협업 기회 증가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 설치·O&M·디지털 솔루션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EU 통상규제·수출 통제 리스크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디지털 규제 본격 시행으로 데이터 관리·보안 부담 증가 유럽 내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로 제품 라벨링·성분 검증 비용 상승 노동 공급 제약으로 설치·운영 서비스 지역 가능성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정부·RVO 주관 포럼·전시회 참여를 통한 해상풍력·K-뷰티·K-푸드 통합 협력 네트워크 구축



K-브랜드 가치 확산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뷰티·푸드 프리미엄 브랜드화, EPC·O&M 솔루션에서 한국 기술력·품질·납기 경쟁력 부각



EU 규제 대응 및
ESG 경영체계 고도화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ESG·CBAM 대응 체계 구축, 공동 생산·공동 물류 활용으로 인증·비용 리스크 완화



에너지·첨단 산업 분야
기술 협력 확대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프로젝트 다변화 및 단계적 진출, 장기계약·현지 파트너 연계로 비용·규제 리스크 분산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화 추진 강화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농식품·K-푸드 수요 확대

- 푸드밸리(WUR 등)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를 통한 기능성·발효 식품 공동 개발 추진
- 지속가능성과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클린라벨 K-푸드 중심으로 현지 유통망 확대
- 비건·할랄 인증, 저당·저염 조정 등 현지 규제 및 소비 특성에 부합하는 제품 라인업 구축
- Ready-to-Eat 건강 간편식, 발효 소스류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및 EU 전역 유통채널(B2B·B2C) 진입 강화

비건·저자극 K-뷰티 수요 확대

- EU 화장품 규정 및 임상시험 기준을 충족한 비건·더모코스메틱 제품 중심 진출
- 피부 자극·알레르기 완화를 위한 저자극·과학 기반 포뮬러 개발 및 임상 데이터 확보
- 약국·드럭스토어·온라인 플랫폼 등 다종 유통채널 공략으로 프리미엄·대중시장 동시 진입
- 네덜란드 소비자 특성(민감성·성분 안전성)에 맞춘 프리-프롬(Free-from)·비건 인증 마케팅 강화

해상풍력 및 에너지 전환

- EPC·기자재 공급 협력 및 벤더 등록을 통한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참여 확대
- 모노파일·해저케이블·유지보수(O&M) 디지털 솔루션 등 기술·서비스 패키지형 진출 추진
- 예측 정비·디지털 트윈·드론 점검 등 디지털 기반 O&M 협력 강화
- ESS·수소 전환·해조류 양식 융합형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에너지·식품·소재 융복합 진출 기반 확보

전략 ①

(농식품) 지속가능·프리미엄 K-푸드 패키지 공략



전략 수립 배경

- 네덜란드는 푸드밸리(와게닝겐) 중심의 글로벌 식품 혁신 허브이며, 지속가능성 전환 가속
- 한국산 곡물·곡분 조제품, 채소·과실 조제품, 소스류가 최근 빠르게 성장하여, K-푸드 인지도 상승
 - * 유럽 물류 허브(로테르담)·영어 친화 환경을 활용하면 EU 전역 확산 비용과 리드타임 절감

□ 주요 소비 트렌드

- (윤리적·프리미엄 소비 확산) 네덜란드 소비자는 맛과 가격뿐 아니라 생산 방식의 윤리성(Ethical Sourcing)과 제품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유제품과 스낵시장에서는 '지역산(Local Sourcing)', '전통 제조(Traditional Crafting)', '유기농(Organic)' 제품이 프리미엄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이러한 제품이라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음
- (클린 라벨과 기능성 트렌드 강화) 주요 식품군을 중심으로 인공첨가물이 없는 클린 라벨(Clean Label) 제품과 단백질·식이섬유 등 기능성 영양성분(Functional Ingredients)을 강조한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유제품에서는 고단백·저당 제품, 음료 부문에서는 비타민 강화·무첨가 음료, 스낵류에서는 천연원료·저가공 제품이 두드러지고 있음
- (전통과 혁신의 결합 가치 부상) 네덜란드 식품 시장에서는 '전통(Meets 혁신)' 콘셉트가 주목받고 있음
 - 오랜 식문화의 유산을 현대적 기술과 소비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한 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며, 특히 치즈·요거트 등 전통 유제품의 제조 스토리, 로컬 수제 음료·베이커리 제품 등에서 '핸드크래프트(Handcrafted)' 이미지가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소비 패턴 속에서 한국의 발효식품은 전통 제조 방식과 과학적 효능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 현지 소비자 설득력이 높은 품목으로 평가됨(IInnova Market Insights, Food Trends in the Netherlands : Consumer Insights and Preferences, '25년 8월 14일)

□ 유망 품목

- 발효 기반 소스류(된장·고추장 등)
 - 네덜란드 소비자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며, 소스·양념류에서 새로운 품목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 한국 발효 소스는 저염·저당 조정과 비건·할랄 인증을 결합하면 채식·종교적 제약이 있는 소비자층 까지 접근 가능
- 발효 과정 자체가 전통·건강·스토리로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으며, 푸드밸리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과학적 효능(장 건강, 단백질 흡수 등)을 입증하면 설득력이 높아지는 구조
- 건강 지향 간편식(비건·저당·고단백)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증가, 간편식 선호 확산으로 Ready-to-Eat 제품군의 성장세가 뚜렷
 - 특히 비건 레디밀, 저당 라면·죽류, 고단백 스낵 등은 간편함과 건강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현지 바이어가 선호하는 아이템
 - 네덜란드에서는 유당·글루텐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의무이므로, 이러한 성분을 제거한 무(無) 알레르기 제품 라인업을 갖추면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진출전략

- 현지 인증·규제 선제 대응
 - EU 식품안전 규제(HACCP, FSSC22000)와 네덜란드 소비자가 민감하게 보는 알레르기·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
 - 비건, 할랄, 저당·저염 등 인증을 패키지로 제시하면 현지 유통사 협상 시 신뢰 확보가 용이함
- 프리미엄·스토리텔링 중심 마케팅
 - 한국 발효식품은 단순 소스가 아니라 ‘건강+전통+혁신’ 콘셉트로 접근해야 함
 - 푸드밸리(WUR 등) 연구기관과 협업해 장 건강·영양학적 효능을 입증하면 프리미엄 세그먼트 진출에 유리
- 옴니채널 유통 진입
 - (B2B) 수입·도매 업체를 통해 Albert Heijn, Jumbo 같은 대형마트와 Kruidvat, Etos 등 드럭스토어 진입 모색
 - (B2C) Bol.com, Picnic 같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니치 소비자층(채식·무알레르기 선호층) 공략
- 현지 파트너십 강화
 -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사와 협력하면 초기 안정적 입점 가능성이 높음
 - 이후에는 대형 유통사 PL(Private Label)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물량 확대를 노려볼 수 있음

전략 ②

(화장품) 비건·저자극, 과학적으로 검증된 K-뷰티 공략



전략 수립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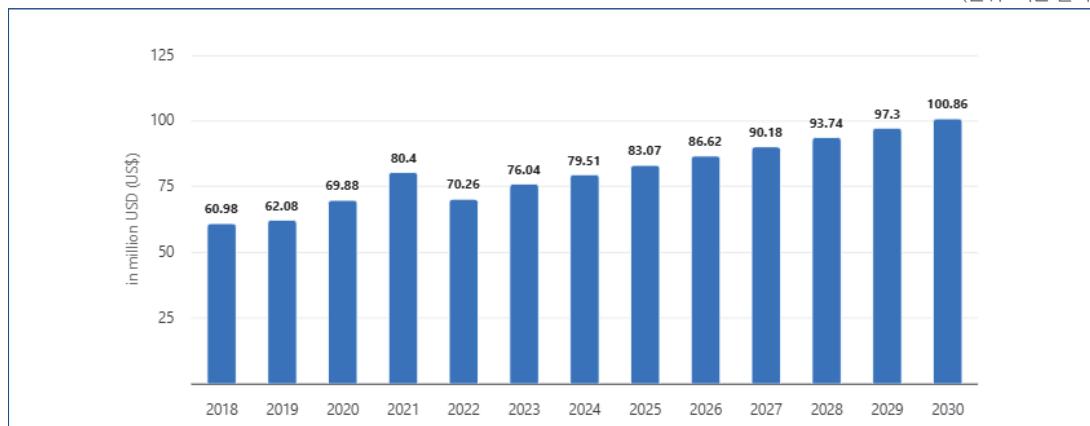
- 네덜란드 소비자는 화장품을 고를 때 가격보다는 피부에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 성분인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함
- 최근에는 비건·클린(유해 성분 배제), 과학적 근거(임상시험, 피부과 테스트)를 갖춘 화장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
- K-뷰티는 이미 혁신 성분, 발효 기술, 비건 콘셉트 등에서 강점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차별화가 가능
- 다만 EU 규제(제품 등록, 성분 제한, 라벨링 규정 등)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 불가능하므로 규제 대응 능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임

□ 현지 동향

- (피부 건강 중심 소비 확대) 네덜란드에서는 피부 자극·알레르기 문제로 피부과 진료 수요가 늘면서, 천연·식물성 성분 제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 소비자들은 습진·건선 등 피부 질환 완화 목적의 저자극·더모코스메틱 제품을 선호하며, 허브·식물 기반 포뮬러가 주목받고 있음
- (시장 성장세) '25년 네덜란드 천연 스킨케어 시장 매출은 약 8,307만 달러에 달하며, '30년까지 연평균 3.9% 성장해 1억 86만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임
 - (B2C) 온라인 채널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져, '25년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4,905만 달러에 이르며 '30년까지 7,567만 달러에 이를 전망임

〈네덜란드 천연 스킨케어 예상 연간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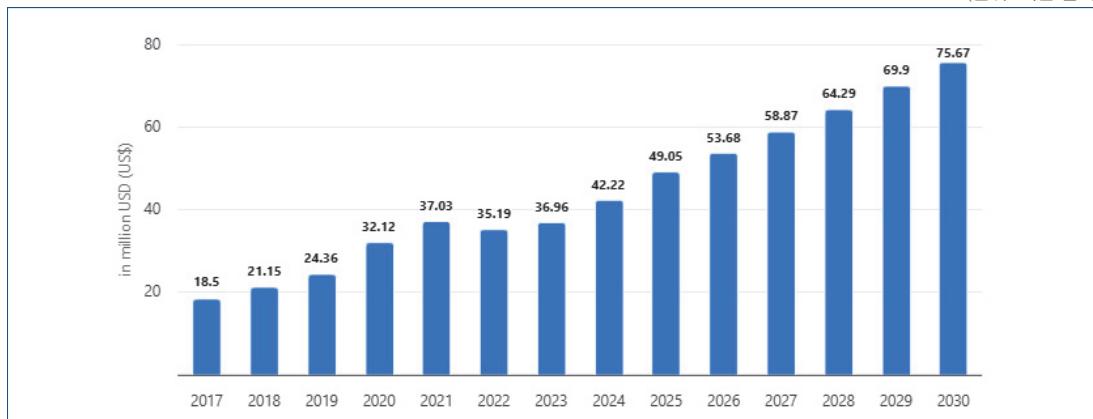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tatista

〈네덜란드 천연 스킨케어 B2C 전자상거래〉

(단위: 백만 달러)



자료: Statista

- (비건·클린 뷰티 확산) 소비자들은 동물성 원료 배제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성분 없는 100% 비건·천연 성분 제품을 선호. 이에 맞춰 Witlof Skincare, Abloom Skincare, Green People 등 현지 브랜드가 비건·유기농 인증을 내세우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유통채널 다변화) 대중 제품은 Albert Heijn, Jumbo 같은 대형마트, Kruidvat·Etos 같은 드럭스토어에서 판매되고, Holland & Barrett, Douglas 같은 전문 뷰티 스토어는 프리미엄 및 클린 뷰티 브랜드 확산에 중요한 채널로 부상
 - 온라인에서는 Bol.com, Wehkamp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천연·해외 브랜드 유통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망 품목

- 더모코스메틱 및 민감 피부를 위한 피부 장벽 케어 제품
 - 피부 자극·알레르기 환자가 늘면서 임상시험·피부과 테스트로 검증된 저자극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 특히 피부 장벽 강화·민감성 진정 솔루션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바이어 설득력이 높아 시장 확산 가능성이 큼
- 비건·클린 포뮬러 제품
 - 동물성 원료를 배제하고, 유해 화학성분을 최소화한 비건·천연 성분 제품은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현지 소비자가 선호
 - 네덜란드 내 유통망(전문 뷰티 스토어·드럭스토어)에서도 비건 인증 마크는 제품 차별화 요소로 활용됨

- 선케어·환경 방어 제품
 -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블루라이트·미세먼지 등 외부 유해 요인 차단 기능을 강조한 제품은 도시형 피부 보호라는 명확한 스토리텔링이 가능
 -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미세먼지·블루라이트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을 함께 차단하는 제품은, 기능성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 특성과 맞아떨어져 프리미엄 시장 확대 여지가 있음

□ 진출전략

- 규제 대응 선행 및 임상 데이터 확보
 - 네덜란드 시장은 EU 규제를 철저히 따르기 때문에 CPNP(EU의 화장품 제품 등록 포털) 등록, PIF (제품정보파일) 작성, 성분 제한 준수 등이 필수 조건임
 - 단순히 규제를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과 임상시험·유럽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시험수탁기관)와의 협력 테스트 결과를 확보하면 제품 신뢰도가 높아지고 바이어 와의 계약 과정에서도 설득력이 강화됨
- 전문 채널 공략과 옴니채널 확산
 - 현지 소비자들은 피부 건강에 민감해 더모코스메틱·약국 채널에서 검증된 제품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약국·드럭스토어 입점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동시에 Douglas·Holland & Barrett 같은 전문 뷰티스토어, Bol.com·Wehkamp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함께 활용하면 대중 소비자와 프리미엄 소비자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음
-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 네덜란드 소비자는 피부톤이 다양하고, 텍스처나 향에 대한 기호도 한국과 다름. 이에 맞춰 색조 범위를 넓히고 텍스처를 현지화하면 시장 수용성이 높아짐
 - 네덜란드 소비자는 성분 안전성에 민감해, EU 규정상 표시 의무가 있는 향료 알레르기의 관리가 필수적임. 또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글루텐·락토스 프리와 같은 ‘프리-프롬(Free-from)’ 콘셉트를 적용하면, 민감성 소비자층을 겨냥한 마케팅 차별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

전략 ③

(해상풍력)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디지털 기술로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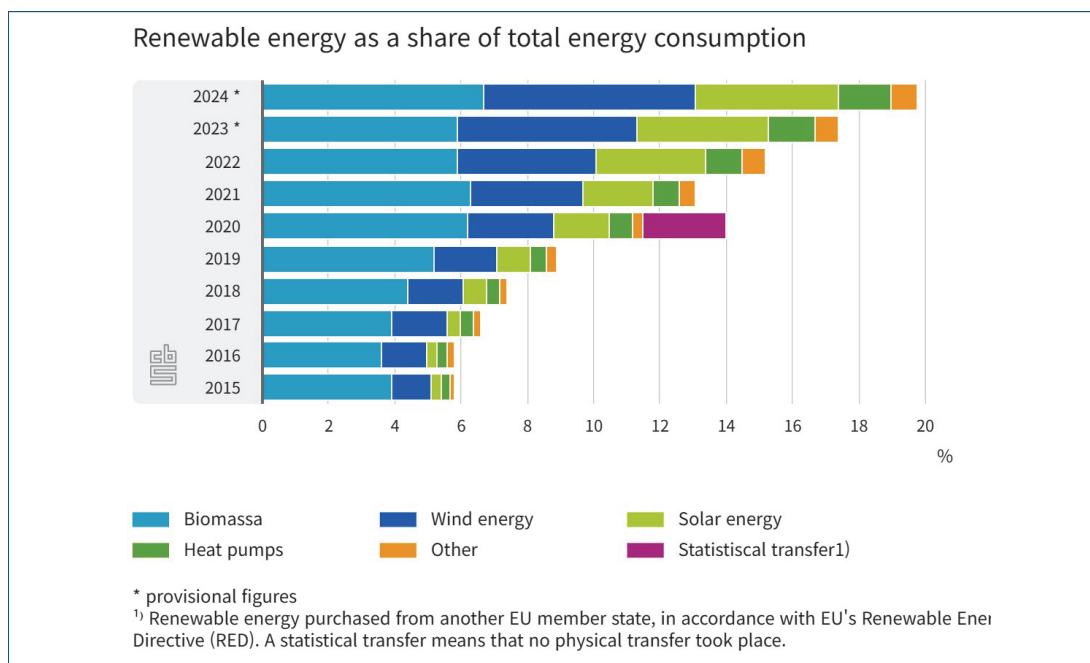
전략 수립 배경

- 네덜란드는 북해를 기반으로 유럽 해상풍력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24년 해상풍력 발전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전체 풍력의 절반을 차지
* '32년까지 21GW, '40년까지 30~40GW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나 비용 상승·투자 불확실성으로 속도 조절 중
- 한국 기업은 강재·케이블·EPC뿐 아니라 디지털 O&M, 예측 정비,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보완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국면

□ 현지 동향

- (설치 확대와 속도 조절 병행) 네덜란드는 IJmuiden Ver, Hollandse Kust Zuid 등 대형 해상풍력 단지를 연속적으로 건설 중이며, 비용 상승과 공급망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40년 설치 목표를 기존 50GW에서 30~40GW 범위로 조정함(Netherlands Enterprise Agency(RVO), '25년 7월 29일)

〈네덜란드의 총 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자료: Statistics Netherlands(CBS), '25년 6월 6일

-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이 '24년 19.8%로 증가, 해상풍력을 국가 전력 전환의 핵심 축으로 유지(CBS, '25년 6월 6일)

- (해상풍력과 해양 바이오 융합)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 단지 내 해조류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Amazon 같은 글로벌 기업이 투자에 참여함
 - 이처럼 해상풍력과 해조류를 결합한 모델은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에너지·식품·소재 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주목받고 있음

□ 유망 품목

- 모노파일·기초 구조물
 - 해상풍력 단지는 대형 터빈을 바다에 설치해야 하므로, 초대형 모노파일과 트랜지션피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네덜란드의 Sif Group이 세계 최대 규모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강재(Steel Material) 가공·코팅 기술을 접목하면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해저 케이블 및 연결 부품
 - 발전소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필수이며, 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종단·조인트, 모니터링 솔루션 등 부품 수요도 증가
 - 고신뢰성·내구성을 갖춘 케이블 부품은 프로젝트 자연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어 바이어가 적극적으로 찾는 아이템임
- 운영·유지보수(O&M) 디지털 솔루션
 - 해상풍력 단지는 설치 이후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측 정비 알고리즘, 디지털 트윈, 드론·ROV 점검 같은 디지털 O&M 기술이 빠르게 확산
 - 다운타임을 줄이고 발전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은 프로젝트 수익성과 직결되므로, 가격 경쟁보다 기술 차별화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임
- 에너지 저장 및 융복합 기술
 - 해상풍력 전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연계 기술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해상풍력 단지와 해조류 양식을 결합한 복합 프로젝트까지 등장
 - 단순 전력 생산을 넘어 '에너지+식품+소재'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한국 기업의 융합형 기술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임

□ 진출전략

- 글로벌 EPC·디벨로퍼와 협력 진입
 - 네덜란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Ørsted, RWE, Van Oord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들의 벤더리스트에 등록하거나 하청 공급망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임

- 초기에는 단품 공급보다 강재·코팅·설치 서비스 등 모듈형 패키지 형태로 제안하면 협력 가능성이 높아짐
- 융복합 프로젝트 참여 확대
 - 네덜란드에서는 해상풍력과 해조류 양식을 결합한 North Sea Farm #1 같은 복합 프로젝트가 이미 운영 중임
 - 한국 기업이 ESS·수소 전환 기술과 결합시켜 융복합 모델에 참여하면, 단순 전력 시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 현지 거점 확보 및 리스크 관리
 - 로테르담·에이마위던 같은 항만을 중심으로 서비스 거점이나 부품 미니 허브를 운영하면, 긴급 유지 보수와 납기 대응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네덜란드의 질소 규제, 인하가 자연 문제에 대비해 일부 공정(코팅·프리어셈블)을 인접국에서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함



건강 지향 간편식(비건·저당·고단백)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와 맞벌이 증가로 간편식 수요 급증 • 건강까지 고려한 Ready-to-Eat 제품군이 현지 소비 트렌드와 부합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비건 레디밀·저당 간식 시장 확대, 독일·덴마크 기업이 적극 공세 • 현지 브랜드는 단백질 강화·저당 포뮬러로 차별화 중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레디밀, 저당 라면·죽류, 고단백 스낵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 무(無)알레르기 라인업을 구축해 유당·글루텐 민감 소비자 공략 • 온라인(Bol.com, Picnic)과 오프라인(Albert Heijn, Jumbo) 동시 진입 |

프리미엄 K-음료(기능성·저당·비건)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당·비건·기능성 음료에 대한 수요 증가 • K-푸드 확산과 함께 한류 음료 브랜드의 진출 기회 확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시장에서 코코넛워터, 식물성 밀크류가 성장 중 • 현지 브랜드는 친환경 포장·클린 라벨로 차별화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패키지로 소비자 맞춤 공급 • 비건·저당·카페인 프리 콘셉트와 기능성 강조 • 아시아 전문 수입 업체를 통해 초기 입점 후 대형 유통망 확대 |

비건·저자극 스킨케어(더모코스메틱)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에서 민감성 피부·알레르기 문제로 저자극 화장품 수요 증가 • 임상검증·피부과 테스트 기반 제품이 신뢰도 확보에 유리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lof Skincare, Abloom 등 현지 브랜드가 비건·유기농 인증으로 시장 확대 • 글로벌 브랜드는 임상 데이터·더모 채널 집중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onsible Person 지정 → CPNP 등록 → PIF 작성 등 EU 규제 선제 대응 • 피부과 임상시험·CRO(임상시험수탁기관) 협력으로 기능성 검증, 마케팅 활용 • 드럭스토어(Kruidvat, Etos)와 온라인(Bol.com) 동시 진출 |

해상풍력 모노파일·구조물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정부의 '32년 21GW 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 구조물 수요 지속 • 한국 기업의 강재·코팅 기술력과 현지 협업 경험이 강점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Sif Group이 세계 최대 규모 증설 추진 • 독일·덴마크 기업이 EPC 부문에서 선점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제조사와 전략적 제휴 활용 • 모듈형 패키지(강재 가공+코팅+현장 서비스)로 EPC 입찰 대응 • 로테르담 항만 인근에 부품 미니 허브 구축 |

O&M 디지털 솔루션(예측 정비·디지털 트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 단지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운영비의 절반 이상 차지 • 다운타임 절감과 효율성 개선 수요 급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주요 EPC 기업들은 하드웨어 중심, 디지털 솔루션 공급은 제한적임 • 예측 정비 알고리즘, 드론 점검 분야 경쟁 강도가 낮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ADA(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풍황 데이터 결합 예측 정비 모델 제공 •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패키지화 • 성능보증(SLA)과 결합해 장기 계약으로 연결 |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 정부는 원격의료(Telehealth)와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임 한국의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기업이 네덜란드에 투자할 정도로 현지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환경이 우수함 중소·중견 기업은 AI 진단 솔루션, 원격의료 플랫폼, 의료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기회가 확대될 전망임 |
| 경제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유럽 다국적 의료기기·IT 기업이 진출해 있으나, 한국 기업은 AI·빅데이터 기반 솔루션과 원격진단 서비스로 차별화 가능 유럽 의료 규제를 충족한 제품과 현지화된 서비스 제공 역량이 성공의 관건임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 병원 및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EU 보건기술평가(HTA) 제도에 맞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현지 연구기관 및 유럽 데이터 프로젝트(European Health Data Space)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ICT·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는 AI·사이버보안 분야 EU 핵심 거점으로, 정부가 'Netherlands AI Coalition'과 'The Hague Security Delta(HSD)'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생태계와 데이터 인프라 강화를 추진 중임 |
| 경제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립스, 지멘스 등 유럽의 주요 대기업 및 글로벌 IT 컨설팅사들이 네덜란드 사이버보안·AI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 AI 클러스터(에인트호번), 사이버보안 허브(Hague Security Delta)와 협력 채널을 구축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 R&D 및 실증(Pilot) 참여를 통해 시장 진입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

한국 문화콘텐츠(음악·영상) 및 이벤트 서비스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드라마·영화와 K-팝이 네덜란드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몬스타엑스 등 K-팝 그룹 공연이 암스테르담 및 로테르담에서 매진되는 등 한류 확산세 뚜렷• 이에 따라 한국 문화 관련 페스티벌, 공연기획, 이벤트 서비스 수출 기회가 큼 |
| 경제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로컬 공연·콘텐츠 제작사와의 경쟁은 존재하지만, 한국 콘텐츠 특유의 팬덤과 스토리텔링은 차별화 요소• 최근 한국-EU 합작 제작, 스트리밍 플랫폼 유통 확대가 증가하는 추세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공연기획사, 스트리밍 채널과 제휴해 배급·이벤트를 확대• 한국문화원 및 지방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 페스티벌 개최• 공연은 로컬 프로모터와 협업해 대형 공연장 유치 및 팬덤 마케팅을 강화해야 함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네덜란드 지역 KOTRA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인재	네덜란드 채용 설명회 및 취업 상담회	4월/암스테르담
전력기자재	한국-유럽 수소 투자유치 IR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5월/로테르담
소비재	프라이빗 라벨 전시회(PLMA 2026) 한국관 연계 수출상담회	5월/암스테르담
물류	유럽향 B2C 공동물류 지원 사업	연중/암스테르담
방산	2026 네덜란드 방산전 연계 첨단 방산 산업 협력 사업	11월/로테르담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제21대 네덜란드 하원 총선(Geneal Election)	'25년 10월 29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Gemeenteraadsverkiezingen)	3월 18일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2026 네덜란드 정부 예산안 발표(Prince's day)	9월 15일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
2026 반기별 정기 법령 개정 시행일	1월 1일, 7월 1일	매년 상하반기 법령 및 세제 개정 시행

유망 전시회 캘린더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식·케이터링 박람회(Horecava)	1월 12~15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교통 인프라 박람회 (Intertraffic Amsterdam)	3월 10~13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오픈소스·클라우드 박람회 (KubeCon + CloudNativeCon Europe)	3월 23~25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클리닝 산업 박람회 (Interclean Amsterdam)	4월 14~17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텔 서비스 박람회 (Independent Hotel Show Amsterdam)	4월 22~23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박람회 (Plastics Recycling Show Europe, PRSE)	5월 5~6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PB(자사상표) 산업 박람회 (PLMA World of Private Label)	5월 19~20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로테르담 수소산업 박람회 (World Hydrogen Summit & Exhibition)	5월 19~20일	Ahoy 로테르담

전시회명	일시(잠정)	장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금융 서비스 박람회 (Money20/20 Europe)	6월 2~4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디지털 ID 산업 박람회 (Identity Week Europe)	6월 9~10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 농업 기술 박람회 (GreenTech Amsterdam)	6월 9~10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부동산 산업 박람회(PROVADA)	6월 9~11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로테르담 프로젝트 화물 박람회 (Breakbulk Europe)	6월 16~18일	로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율운항선박 박람회 (Autonomous Ship Expo)	6월 16~18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헬스테크 산업 박람회 (HLTH Europe)	6월 15~18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방송·콘텐츠 박람회 (IB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9월 11~14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공지능 산업 박람회 (AI & Big Data Expo Europe)	10월 20~21일	RAI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로테르담 조선·해양산업 박람회(EUROPORT)	11월 4~7일	로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해상풍력 박람회 (Offshore Energy Exhibition & Conference, OEEC)	11월 23~25일	암스테르담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강혜림	과장	암스테르담무역관	31-20-754-6902	hlkang@kotra.or.kr
2	한문갑	PM	암스테르담무역관	31-20-754-6192	han@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네덜란드 진출전략



ISBN : 979-11-402-1497-6 (95320)